

3 - JUL 2 6
Copy ______ 1960

청년생활

5
1959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자

김 태 원

김 일성 동지는 《…사회주의 혁명을 빨리 완성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로 들어 갈 때 우리도 뒤떨어지지 말고 그들과 함께 공산주의로 들어 가야 하겠습니다》(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라고 가르치시였다. 인류의 리상이며 지상 락원인 공산주의에로 점차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물질—기술적 준비와 함께 새형의 인간들이 준비되여야 한다. 재형의 인간이란 공산주의 사상 의식과 높은 문화 기술 수준과 고상한 도덕 품성과 건전한 육체를 가지고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을 다 할 수 있는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을 의미한다. 청년들이 이와 같이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자!.》는 구호를 자기의 모든 생활에 관철시켜야 한다.

공산주의적으로 일하자

공산주의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려는 지향과 로동에 대한 자각적이며 창조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위대한 레닌은 공산주의 로동에 대하여 《…그것은 일정한 생산물을 받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나 또는 미리 제정되고 법적으로 규정된 어떤 기준량에 의하여 하는 로동인 것이 아니라 자원적인 로동, 기준량과는 관계없는 로동이며 보수를 타산하지 않는, 보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로동이며 공동 리익을 위해서 근로한다는 관습에 의하여 또한 공동 리익을 위한 로동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적인 〈관습으로 된〉 태도에 의한 로동이며 건전한 육체의 요구로서의 로동이다》라고 교시하였다.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로동의 고상한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마음 끌려 일하는 자각성과 적극성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 로동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어떤 무거운 부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로동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건전한 육체의 요구로, 사람의 쾌락으로 되며 보수를 따지는 돈'벌이 근성이나 기준량에 구애되는 낡은 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사회를 위한 복무성으로 하여 아무런 외부의 통제도 없이 하는 로동으로 된다.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개인의 리익과 공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사회의 복리와 인민의 행복를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일하며 집단적 로동을 즐기며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을 낸다.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 속에는 공산주의 로동의 싹이 힘차게 자라나고 있다. 김책 제철소 황 대연 청년 브리가다원들이 발기하고 광범한 로동 청년들이 지지 호응하고 있는 《천리마 청년 작업반》 운동이 바로 그 표현의 하나이다. 《천리마 청년 작업반》 운동에 참가하는 매개 사람들의 의무와 맹세에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 사업에 훌륭히 기여하겠다는 지향이 표현되여 있다. 그들은 당의 경제 정책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행하는 선진 돌격대가 되여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넘쳐 실행할 뿐만 아니라 당이 제시한 방대한 전망 과업을 6~7년이 아니라 4~5년 내에 앞당겨 실행하며 창의 고안과 기계화, 합리화 안을 재빨리 도입하며 표준 조작법과 기술 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불합격품을 퇴치하며 원료 및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는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기술 지표와 제품의 질에 있어서 선진 국가의 수준을 따라 잡으며 앞서겠다는 결의를 표명하고 있다.

오늘 지하리—평산간 철도 부설 공사에 동원된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 속에서, 평남 청년 탄전과 허천 청년 광산의 개발자들 속에서 발휘되고 있는 대중적 영웅주의와 기적적 로력 위훈들은 로동에 대한 그들의 공산주의적 태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과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되고 있는 청년들 속에서는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생활의 절실한 요구와 관습으로 일하는 공산주의적 태도가 배양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청년들이 다 이러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극 소수이나 아직도 일부 청년들 속에는 로동에 대한 낡은 사상 잔재들이 근절되지 않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발현되고 있다. 일하기 싫어하며 육체 로동과 특히는 농업 로동을 천시하며 로동 규률을 위반하며 일은 적게 하고 보수를 많이 받으려는 등 락후한 현상들은 우리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저해를 준다. 로동에 대한 이러한 낡은 태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청년들은 공산주의 사회는 수백만 근로자들의 자각적이며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우리 대렬 내에서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 놀고 먹는 자들, 건달 부리는 자들을 반대하는 사상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적으로 배우자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는 높은 과학 기술에 기초하여 건설되느니 만큼 훌륭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과학과 기술과 문화를 소유하여야 한다. 그런데 배우는 방식도 새로워야 한다. 그 새로운 방식은 바로 일하면서 배우며 배우면서 일하는 방법 즉 리론과 실천, 로동과 학습을 결합시키는 방법이다.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은 부단히 기술적 혁신을 일으키는 선구자가 되며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우는 공산주의적 기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김책 제철소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은 생산 공정에 정통하며 다기능 습득 사업을 강화하여 금년 중에 브리가다 전체 성원들의 반수 이상을, 1960년까지에는 전체 성원을 용광로 직장 내 어떠한 직종에서도 능숙하게 일할 수 있는 다기능공으로 양성하며 브리가다원들의 평균 기능 급수 5.5급을 7급 이상의 수준에로 높이며 3~4년 내에 전체 브리가다 성원들이 평균 고급 중학교 졸업 정도의 일반 교육 수준에 이르게 하며 기수 또는 기사가 될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공산주의적 로동과 학습의 결합은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간의 본질적 차이를 없애며 청년들로 하여금 문화 혁명과 기술 혁명 과업 수행의 앞장에 설 수 있게 한다.

기술 문화 혁명에서 청년들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일반 지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필요한 것을 배우는 기초로 된다. 따라서 인민 학교 졸업 정도의 청년은 초급 중학교 정도에로, 초급 중학교 졸업 정도의 청년은 고급 중학교 정도에로, 고급 중학교 졸업 정도의 청년은 대학 졸업 정도에로 자기의 일반 지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기술 수준을 제고함이 없이는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전진시킬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청년들이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는 것은 물론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다기능공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는 실천과 결부시켜 배우며 배운 것을 곧 실천에 적용하며 실천에서 부닥치는 모든 문제를 리론적으로 충분히 기초 지으며 확증하는 학습 태도를 가져야 한다.

과학과 기술의 요새를 점령하는 것은 헐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저런 구실로써 학습을 게을리하거나 태공하는 현상들과 투쟁하면서 인내성 있게, 꾸준하게 공산주의적으로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매개 청년들은 당이 제시한 기술 문화 혁명의 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완성을 촉진시키는 선구자가 되여야 한다.

공산주의적으로 생활하자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는 높은 문화 기술과 함께 공산주의적 사상 의식과 도덕 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집단주의에 무한히 충실하며 새 것에 대한 강력한 지향과 그 승리에 대한 신념, 높은 문화성과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산주의적으로 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집단주의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소유가 확립된 결과 개인 리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 기초가 근본적으로 청산되였다.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리익과 사회의 리익, 집단의 리익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사회의 리익과 행복에서 자기의 리익과 행복을 찾으며 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로력한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 집단내에서는 호상 단결하며 방조하며 협조한다.

항일 유격대의 투쟁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적으로 생활하는 산 모범이다. 항일 빨찌산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고 맑스—레닌주의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고하게 전진하였다. 그들은 개인의 운명보다 먼저 당과 혁명의 운명과 리익을 앞세우고 더 귀중히 여기였다. 그들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쑤에 대한 치솟는 증오심,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충만되고 사회주의—공산주의 필승의 신념과 불요 불굴의 투쟁 정신,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 동지 호상간의 혁명적 단결과 공산주의적 동지애로 무장하였으며 겸손성과 소박성, 혁명적 규률에 대한 자각성 등 고상한 공산주의적 품성의 모범을 수립하였다.

오늘 《천리마 청년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고귀한 혁명 전통을 심오하게 학습하며 혁명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 그들처럼 살며 일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집단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자기 의무에 충실하며 동지 간의 우의와 신임, 방조와 창조적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로동 계급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을 생활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들은 매 시기 우리 당의 정책을 철두 철미 관철시키며 일체 비사회주의적 현상과는 비타협적 투쟁을 한다. 그들은 로동을 보람있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사회적 소유물을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며 례절을 단정히 하는 동시에 위생 문화적 수준을 제고하며 모두가 인민 체력 검정 합격자로 될 것을 결의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고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극복하면서 사회주의—공산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당의 의지대로 사고 하고 행동하며 당에 무한히 충실한 붉은 전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모든 남녀 청년들은 언제 어데서나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는 태도와 기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과 공산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의 영예로운 붉은 전사로서 인민 경제의 긴요하고 어렵고 힘든 부문의 앞장에 서며 기술 문화 혁명 수행에서 선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 공작원들에게 주신 그이의 말씀

조 동 욱



《…청년들은 귀중한 보배들이다. 그들은 태산도 허물어 낼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힘을 더 키우고 단합시켜 위대한 사회 변혁의 거대한 혁명적 력량으로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청년 사업이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1933년 내가 왕청현 유격대에서 청년 간사로 사업하던 때 김 일성 원수께서 우리 청년 공작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당시 원수께서는 왕청현을 중심으로 유격대와 당 사업을 지도하고 계셨는데 나는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청년들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때의 청년 사업에 대한 형편을 보면 많은 청년 공작원들은 청년 사업을 오래 해 보지 못하였으며 또 청년 조직도 장성 확대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실제 사업에서는 이러저러한 결함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례를 들어 유격 근거지 내와 유격대들의 활동 지역 내에는 이미 수년 동안 지하 비밀 공작을 통해서 단련되고 훈련된 수많은 우수한 청년들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청년 공작원들은 이들에게 있는 사소한 결함들 즉 지식이 좀 부족하다거나 아직 어리다거나 혹은 작풍과 태도에 다소 결함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도외시하거나 배제하며 로동자, 빈농 청년 군중을 광범히 조직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청년들에 대한 선전 교양 사업에서도 대상에 맞지도 않는 말과 방법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청년 사업을 개선 발전시키자면 매개 청년 공작원들이 청년 사업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게 하며 나타난 결함들을 시정할 방침을 제기하여야 하였다.

나는 청년 사업을 담당 지도하던 전 기간을 통하여 청년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한 김 일성 원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다. 특히

1933년 3월 경에 왕청현 요영구 뒤'골에서 진행된 왕청현 공청 확대 대회가 있은 이후 원수께서는 청년들 속에서의 조직 정치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한 청년 공작원들의 임무를 거듭 명시하시였다.

벌써 오랜 시일이 지났으므로 내가 그 때 들은 이야기를 모두 기억할 수는 없다. 다만 원수께서 말씀하신 중심 사상의 몇 가지 요지만을 기억을 더듬어 여기에 적는다.

✻ ✻

…현 시기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침략과 모략이 더욱 혹독하여 짐에 따라 이에 대처하여 혁명의 후비 력량을 더욱 조직 확대해야 할 과업이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대렬을 확대 강화하며 광범한 청년 군중을 반일 혁명 투쟁에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청년 사업에서 지속되고 있는 제반 결함들을 퇴치하고 광범한 로농 청년과 혁명적 학생들 속에서 정치 선전 교양 사업과 조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야 한다.

청년 사업을 쉬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청년들과의 사업을 잘 하며 그들을 잘 키워서 우리 조선 혁명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되게 하자면 무엇 보다도 청년 공작원들인 우리들 자신이 청년들의 참된 어머니가 되여야 한다.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을 대한다면 그것이 비록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청년 사업에서 고쳐야 할 점들이 적지 않다고 본다. 일부 공작원들은 청년들과의 사업을 천편 일률식으로 하고 있다. 선전 교양 사업을 할 때도 대상을 고려함이 없이 아무 데 가서나, 누구에게나 꼭 같은 방법으로 한 가지 말로 사업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된다. 동무들이 어머니를 생각하여 보라, 어머니는 같은 피'줄을 타고난 자식들이라도 맏아들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막내아들에게 하는 말이 다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을 옳게 키워 낼 수 없다.

왜 그렇겠는가? 그것은 형제 간에도 그의 의식 정도가 다르고 그의 취미와 성격, 년령 같은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하물며 동무들은 각계 각층의 청년 군중을 대상으로 말을 해야 하고 그들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여 혁명의 한길로 인도해야 할 정치 활동가들이 아닌가. 동무들이 공청원들을 대하는 것이나 유격 근거지 내의 청년들을 대하는 것이나 적 통치 구역 내의 청년들을 대하는 것이나 학생 청년들을 대하는 것이나가 판에 박은 듯이 다 같다면 소기의 성과를 걷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기대를 어긋나게 함으로써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례를 들어 공부도 하지 못한 농촌 청년들 앞에서 하루 종일 《부르죠아 사회를 타도하고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를 쟁취하며 쏘베트를 창건한다》느니 《맑스—레닌주의 이데오로기》가 어떻다느니 하는 식으로 말한다면 아마도 이야기를 들은 청년들은 무슨 내용인지 리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청년 미친 사람이로군! 우리가 알아 듣지 못할 말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혁명을 한다고 야단인가? 온 종일 들었대야 조선 독립에 대한 소리는 한마디도 없구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상을 고려함이 없이 남이 알아 듣지 못하는 《웅변》으로 멋부터 부리며 연설한다면 듣는 사람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말 공부로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의 선전 선동은 주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한 마디로 말하면 광범한 청년 군중이 잘 알아 들을 수 있는 쉬운 조선 말로 인내성 있게 설복해야 한다. 좀더 자세히 말한다면 우선 그들의 절박한 문제를 미리 옳게 파악하고 그 문제 해결의 구체적 방책을 강구하여 주며 좌담회, 연극, 혁명 가요, 강연, 체육회, 문맹 퇴치 사업, 선전 포스타, 격문 등 각종 형식으로써 그들의 비위에 알맞게 각양한 방법을 취하여 사업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현실 생활에서 제기되는 아주 리해하기 쉬운 것을 취하되 반드시 명심할 것은 말 한 마디,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중에서

노래 한절이 모두다 조 중 인민의 전투적 단결에 의한 일본 제국주의 타도, 민족 및 계급적 해방을 목적한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를 인식시키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까지나 대상에 맞게 일할 줄 알아야 한다. 대상의 사상적 준비 정도와 지식 그리고 계급적 처지 등을 정확히 료해하고 그것을 고려하면서 사업해야 한다.

대상에 알맞게 일하자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그 특성에 적합하게 사업을 조직해야 한다.

청년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특성이 있는 것 같다. 모험하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새 것에 민감한 그것이다.

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을 맡아서 해 보려는 의욕이나 모든 일에 주저함이 없이 앞장 서려고 하는 정열 등은 청년들이 모험하기를 좋아하는 데서 나오는 훌륭한 특성인 것이다. 여기에는 진취성, 용감성, 영웅성과 같은 매우 귀중한 기질이 들어 있다. 청년 사업을 하는 동무들은 그들에게 있는 이러한 좋은 기질을 잘 키워 주고 발전시켜 줘서 그것을 우리 혁명의 숭고한 사업에 남김 없이 바치도록 백방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험을 좋아하는 것이 다 좋다는 것은 아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도 있고 엄격히 단속해야 할 문제도 있는 것이다. 무엇을 경계해야 하며 단속해야 하겠는가? 청년들이 모험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험주의는 우리 투쟁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을 망치게 하는 좋지 못한 경향이다. 쓸데도 없는 《용감성》을 시위해 보려고 하는 일부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용감성》은 하등의 필요도 없다.

모험주의적인 경향은 나아가서는 개인 영웅주의로 떨어지는 것이다.

동무들은 이런 것을 가려서 청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

배우기를 좋아하고 새 것을 좋아 한다는 것은 청년들이 진리와 리상적 사회에 대한 열화 같은 동경심과 정의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어느 누구보다도 감수성이 빠르며 진리를 위하여 희생하려는 정신이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더우기 조선 청년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압박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악을 미워 하고 원쑤를 증오하는 사상이 강하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불합리한 사회를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 즉 계급이 없고 압박과 착취가 없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자! 그러기 위하여 우선 조 중 인민의 공동의 적 일본 제국주의를 하루 속히 조선과 동북에서 구축하고 우리의 민족적 해방과 계급적 해방을 쟁취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 보라. 그러면 청년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발 벗고 나설 것이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동무들이 류의하여야 할 점은 청년들이란 아직 사회 경험과 혁명 투쟁 경험이 어리다는 그것이다. 그들은 무엇이 새 것이고 무엇이 낡은 것인지, 어떤 것을 배워야 하고 어떤 것을 배워서는 안되는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그에 해당한 교양 대책을 옳게 강구해야 한다.

낡은 것도 새 것으로 볼 우려성이 있는 것이다. 례를 들어 어떤 사람은 시계의 겉만 보고 새 시계라고 단정하지만 실상 그 뚜껑을 열고 속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겉은 좀 낡았어도 그 속은 새 것일 수도 있지 않는가? 때문에 청년들에게 새 것의 본질을 배워 주고 일깨워 줘서 그들이 새 것과 낡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목을 길러 주는 것이 동무들이 할 일이다.

동무들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들을 옳게 살려야 한다. 그리고 각이한 지방 정형과 조 중 민족의 생활 풍속, 습관, 문화적 전통과 각계 각층 청년들의 정치적 준비 정도와 절박한 요구들을 심오하게 료해함으로써 대상을 전면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런 토대 우에서 그들에게 알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

또한 매 청년들의 성격까지도 료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일을 잘 하자면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이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 과격한 동무들도 있고 무뚝뚝한 동무들도 있다.

한방의들의 말을 빌면 사람들의 성격, 체질에는 태양, 소양, 태음, 소음 등 사상(四象)이 있다고 한다.

한방의들은 환자를 대할 때 우선 그 환자의 성격부터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왜냐 하면 환자의 성격, 체질에 따라서 같은 병이라도 그 증세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병이라도 그 체질과 성격에 따라서 약제나 분량을 달리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래서 한방의들은 환자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진맥을 하고 약처방을 낼 때까지 모든 관심과 주의를 돌려 그 환자를 료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방의들도 이렇게 하거늘 우리가 어찌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라 우리가 하는 사업을 한방의들이 하는 일에 비길 수 있겠는가!

한방의들은 환자의 병을 고쳐 주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낡은 사상을 새 것으로 고쳐 주고 의식을 개변시키며 그들이 공산주의적으로 사고하며 행동하게 함으로써 혁명전선의 선구자가 되도록 길러 내야 하는 것이다.

청년들을 교양하며 지도하자면 보다 세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의 깊이 관찰하고 포착하여 그들에게 알맞게 사업해야 한다.

그러면 일이 더 잘될 것이요, 노력한 만큼 수확도 클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 일은 일 대로 하는데 성과가 적다. 동무들은 오늘부터라도 이런 점들을 참작하면서 사업하여야 하겠다…

…우리들은 언제나 비판 사업이 중요하다고들 한다. 과연 그렇다. 비판은 우리의 결함을 시정하고 고치는 사상 투쟁의 귀중한 무기다. 한시라도 비판의 분위기가 무디게 되면 사람들은 침체에 빠지게 되고 전진이 멎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무기인 이 비판도 대상에 알맞게 해야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비판을 랭철하고 엄격하게 한다고 해서 대상을 료해하지도 않고 그저 소리만 높여 《엄중하다》, 《옳지 못하다!》고 이것 저것 내리 치기만 한다면 그 비판은 쓸모 없고 무맥한 것으로 될 것이며 오히려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것으로 될 수도 있다.

비판을 진실로 엄격하게 하자면 우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정확하게 료해해야 하며 왜 그런 결함을 낳게 하였는가, 그 원인이 어데 있는가를 파고 들어 가서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대상이 알아 듣도록 하나하나 결함을 지적해 주고 그것이 왜 나쁜가를 일깨워 주고 그가 결함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방조해 주어야 한다. 비판을 할 때에는 사소한 결함이라도 묵과하지 말고 빠짐 없이 분석해 주고 시정할 방도까지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것이 진짜 무자비한 비판이요, 엄격한 비판인 것이다.

우리 유격대원들 가운데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한 대원에게 결함이 있었는데 전우들은 그의 결함을 고쳐 주려고 작정하였다. 그들은 그의 결함을 료해하고 그 원인을 알아내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그런 다음 비판을 주었다. 그 비판이 어떻게도 적라라하고 무자비하고 정당했던지 비판을 받은 동무가 울음을 터뜨렸다. 비판이 끝난 다음 그는 온밤 야간 보초를 섰는데 그 어느 때 보다도 보초를 잘 섰고 그 후 생활에서, 전투에서, 군중공작에서 자기의 결함을 깨끗이 시정하였다.

무엇이 그를 감동시켰고 깊이 뉘우치게 하였으며 그 결함을 시정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동지의 결함을 정확히 료해하고 낱낱이 밝혀 주며 진지하게 고쳐 주려는 전우들의 뜨거운 동지애였다.

동지애가 희박한 비판은 사람을 진정으로 감동시킬 수 없으며 뉘우치게 할 수 없다. 동무들이 생각해 보라. 어머니가 자식을 꾸짖을 때 얼마나 랭철한가를… 그것이 남의 자식이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중에서

라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귀하고 자랑스러운 제 자식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까지도 그토록 아프게 꾸짖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좋다는 것이며 그 사랑은 대해보다도 깊고, 태산보다도 높다고 하는 것이다. 이 고귀한 사랑의 정신을 우리 일군들은 소유해야 한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동지를 비판할 때 머리를 숙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비판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청년들의 각이한 성격들을 잘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례를 들어 무뚝뚝한 동무에게 하는 비판이나 냄비처럼 바글바글 끓는 동무에게 하는 비판이 같아서는 안될 것이다.

말이 적고 꽁한 동무는 한 번 비판을 받으면 오래 가슴 속에 새겨 두는 성미가 있는데 일단 뉘우치고 고친다 하는 때에는 꾸준하게 나가는 기질이 있다. 그러니 이런 동무에게는 비판을 자주 줄 것이 아니라 요긴한 때에 한 번씩 비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만약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되는 대로 비판한다면 그 비판을 잔소리로 들을 수 있다.

반면에 성격이 급한 동무에게는 자주 비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채로 이런 동무들은 접수력도 빠르지만 과오도 잘 범하며 뒤가 없다.

때문에 그가 과오를 범하기 전에 비판을 자주 줌으로써 탈선하지 않도록 그때마다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상에 알맞게 사업을 하자면 우선 청년 군중 속에 깊이 침투되여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요구하며, 무엇이 애로이고, 무엇이 절박한 문제인가 하는 것 등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연구하며 제때에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노력해서 안되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 모르는 것은 허심하게 배워서 인내성 있게 사업을 끌고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청년 공작원들인 동무들은 용감하며 진취적이며 정의감에 불타는 이 청년들을 잘 키워서 강력한 혁명 력량으로 되게 하며 그들을 조선 혁명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바치며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싸울 줄 아는 불굴의 투사들로 육성해야 한다.

✻ ✻

청년 사업에 대한 김 일성 원수의 이러한 교시는 우리 청년 공작원들의 뼈와 살로 되였고 행동의 지침으로 되였다. 우리는 그이의 교시에 충실하면서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유격 근거지에서는 물론이요 적들이 통치하고 있던 동만 일대의 농촌과 성, 시들에서도 공산 청년단 조직들이 근로 청년들 속에 더욱 광범하게 깊이 뿌리 박게 되였으며 그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근로 청년들의 문화 정도, 의식 수준, 그들의 요구와 희망 그리고 청년들의 특성과 성격 등에 적합한 사업 방식에 사회주의적 내용 특히 혁명적 내용들을 담아 청년들에 대한 교양 사업이 진행되였다.

이렇게 우리들은 진리에 민감하며 진취적이고 정의감에 불타며 대담한 기질의 소유자들인 청년 군중을 불패의 혁명 전사로 육성해 내였다.

이미 나는 청년기를 넘었다. 그리고 나는 청년 사업이 아닌 다른 부문에서 공작하고 있다. 그러나 20여년 전에 김 일성 원수께서 하신 이 교시의 말씀은 언제 어데서나 나의 사업과 행동에서 지침으로 되고 있다.



불사조

송 영 원작
오 영 복 그림

장백현 배가'골 밀림 속 천연 암굴인 유격대 병원에서는 흑사재'골 부근의 무명 고지 전투에서 다리에 적탄을 맞고 부상 당한 소대장 리 두성과 선전대원 김 순옥, 최 소년 그리고 발에 심한 동상을 입은 박 부관과 환자 겸 의사인 손 의사가 본 부대에서 떨어져 치료를 받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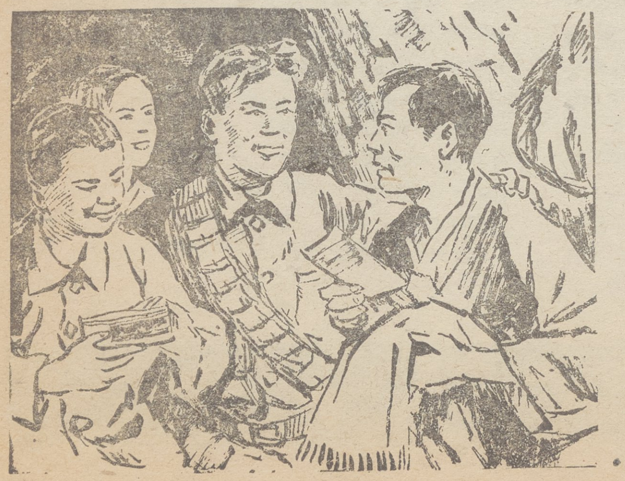
병원이래야 아무런 시설도 없는 천연 암굴이다. 이들은 어떻게든지 병을 얼른 고쳐 가지고 다시 일제를 쳐부실 한가지 념원으로 서로 도우면서 병과 싸운다.

병원 환자들의 식량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 갔던 최 소년은 김 일성 원수께서 친히 지도하신 보천보 전투의 대승리의 희소식을 전한다. 환자들은 모두들 환성을 올리면서 수령에 대한 존경과 그리운 정에 싸인다.



이때 장백으로 돌아 오신 김 일성 원수께서 직접 파견하신 통신원 한 복남이 찾아 왔다. 그는 수령께서 직접 보내신 겨울 내의, 통조림, 일용품 등 보천보 전투에서 로획한 선물과 함께 리 두성에게 보내는 편지와 목도리를 전한다. 편지를 읽고난 리 두성은 너무나 감격하여 목도리를 부둥켜 안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장 동지… 속히 회복하겠습니다. 속히 복대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김 일성 원수의 격려의 말씀은 환자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박 부관은 어떻게든지 속히 회복하여 본대에 돌아 가겠다는 일념으로 통조림통으로 톱을 만들어서 썩어 들어 가는 다리를 잘라 버릴 것을 결심한다.



《내가 목숨 하나가 중해서 또는 애껴서 이러는 것은 아니야……나는 미미한 존재라도 혁명 전사의 한 사람이란 말일세, 그래서 나는 결심했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손으로 두 다리를 자를 결심을 한다.

불행하게도 병원이 원쑤놈들에게 발각된다. 피에 굶주린 승냥이 떼처럼 원쑤놈들은 싯누렇게 달려 든다. 사태는 매우 위급했다. 이쪽은 모두다 환자들 뿐이고 무기라군 오직 권총 한 자루에 탄환은 불과 열'방도 못된다.

리 두성 소대장은 환자들을 모두 퇴각시키고 단신 그를 엄호할 것을 결심한다.

이리하여 그는 김 순옥, 최 소년들에게 박 부관과 손 의사를 속히 안전 지대로 대피시킬 것을 지시한다. 그러나 김 순옥과 최 소년은 한사코 자기들도 남겠다고 막무가내다.

리 두성은 더 엄격히 후퇴할 것을 지시하면서 《…둘이 다 희생되는 것보다 하나만 없어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 혁명에 리익이 된다는 것을 동무들도 잘 알겠지, 어떻게 탄알 몇 개 안되는 권총을 가지고 수백명의 화력을 대항하겠소, 나는 죽을 수 있소, 그 대신 다른 동무들은 살 수 있단 말이요, 자 어서 명령이요.》이렇게 해서 그는 단신으로 동지들의 퇴각을 엄호하여 싸운다.

승냥이 떼처럼 몰켜 오던 적들은 더욱 가깝게 다가 오고 있었다. 그런데 별안간 《둘 잡았다. 하나는 녀자다.》라고 떰벼치는 소리가 들려 왔다.

손 의사와 김 순옥이가 잡힌 것이다.





이들에게 부축되어 함께 가던 박 부관은 덤벼드는 원쑤들을 왈칵 밀치고 쏜살 같이 앞벼랑에 달려 가서 장렬하게 자결하였다.

이제는 병원을 더 지킬 필요가 없게 되였다. 리 두성은 뒤'문으로 뛰어 나가 눈'구덩이 속에 숨었다가 살아난다. 최 소년도 더렁 바위 구멍 속에 들어 갔다가 살아난다.

이렇게 해서 리 두성과 최 소년만이 살아 남게 되였다. 그러나 령하 40도를 넘는 혹한 속에서 병원은 타버리고 식량은 몽땅 떨어져서 살'길이 막연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들은

《어떻게 든지 살자! 장군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 주실게다. 그때 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고 결심한다.

리 두성은 본 부대와 련락을 맺기 위하여 최 소년을 떠나 보낸 후 타다 남은 노루 껍질을 이불 삼고 쥐, 까마귀, 노루 껍질 등을 뜯어 먹으면서 지낸다.

그러던 어느날 고 가란 특무 놈이 다 죽게 되여 가지고 우등'불 앞으로 기여 와서 제발 목숨만 살려 달라고 애걸 복걸한다.

그러나 이 혁명의 원쑤를 어찌 용서할 수 있으랴! 그래서 그는 이놈을 처단할 것을 결심한다.

이때 불'길이 차차 작아지므로 두성은 엎디여서 불을 불게 된다. 바로 이 틈을 타서 고 가놈은 단도를 빼어 들고 두성을 해치려고 달려든다. 그 순간 두성이는 몸을 뒤치면서 성한 발로 고 가놈의 칼 든 손을 걷어 찬다. 칼은 떨어졌다. 비명을 치며 쏜 살 같이 달아나는 고 가놈에게 두성은 번개 같



이 달려들어 찔러 죽인다.

리 두성은 풀 뿌리, 까마귀 고기, 토끼, 쥐, 나중에는 깔고 있던 노루 껍질까지 한 쪼각씩 베여 먹어 가면서도 살아서 동지들의 원쑤를 갚아야 한다는 한 마음으로 갖은 고난을 참는다.

이러기를 석달, 산'짐승 소리만이 들려오는 이 깊은 산'골짜기에도 새 봄이 찾아와서 새 싹이 돋아 났다. 어느 날 두성은 잔디 우에 앉아서 평생 다시 소생하지 못할 듯하던 한 포기 풀을 뽑아 들고 환희와 희망에 싸인다. 그러다 지팽이 끝이 땅 속으로 쑥 들어 가면서 물큰한 감을 느낀다. 이상해서 자꾸 파 보니 순옥 동무가 비상용으로 파묻었던 밀'가루였다. 두성은 그만 포대를 얼싸 안고 눈물을 흘긴다.







이때였다. 정찰을 나온 듯한 왜놈의 군대 한놈이 이리로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두성은 냉큼 권총을 꺼내 들고 사격하려다가 멈추고 《누구냐?》하고 크게 소리친다. 상대방에서 뜻밖에도 《한 복남이다》라는 소리에 그만 두성은 복남에게 달려들어 북 두드리듯이 막 치다가 쓰러져 운다.

한 복남은 열뚜강 전투에서 수 많은 애국자를 석방시켰는데 그들 속에는 감옥 속에 갇히였던 손 의사, 김 순옥, 최 소년들도 해방 되여 지금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전한다. 두성은 너무나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리 두성은 최 소년, 손 의사, 김 순옥 모두들을 그러 안고 한참 동안을 딩굴었다. 김 순옥 동무가 배낭 속에서 장군께서 보내 주신 군복을 꺼내 주자 리 두성은 그만 군복을 안고 운다. 두성이가 꿈인듯 생신듯 옷을 갈아 입고 최 소년에게 《내 얼굴이 어떠냐?》고 묻는 말에 그는 《불사조요, 불사조!》하고 소리친다.

독자들에게

정치 강좌 《조선 로동당》은 6호부터 다시 계속 한다.

편집부

조선 인민 혁명군의 무산 지구 전투 승리 20 주년

1939년 5월 김 일성 동지의 친솔하에 조선 인민 혁명군은 무산 지구에 진출하여 대홍단 일대의 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조선 인민 혁명군의 무산 지구 전투는 보천보 전투 이후에 앙양되였던 국내 혁명 운동에 대한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조선 인민의 전도에 또다시 암운이 떠돌던 어려운 시기에 조직 전개되여 조선 인민에게 해방에 대한 굳은 신심을 불어 넣어 주었고 반일 투쟁을 강력히 고무 추동한 커다란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 였다.

중일 전쟁 개시후 일제는 중국 관내에 수많은 사단들을 투입하여 중국의 방대한 부분의 령토를 강점하였으며 전선을 더욱 확대하려고 광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개시된지 1년 남짓한 1938년 10월 경에 이르러서는 벌써 전선을 더 확대할 능력이 부족하였으며 따라서 전쟁은 상치 계단에 들어 섰다. 그것은 일제가 중국 관내서 중국 공산당이 령도한 8로군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으며 동북 및 조선 국경 일대에서 활동하던 항일 빨찌산들의 강력한 유격전과 그에 호응하여 궐기한 조중 인민들의 반일 투쟁에 의하여 자기들의 후방이 엄중한 위기에 부닥쳤기 때문이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후방에 조성된 위기를 타개하고 계속 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1938년 가을부터 10여만 명의 대병력을 동북 일대, 특히는 조선 인민 혁명군이 주로 활동하던 남만 및 조만 국경 일대에 투입하여 소위 대대적인 《토벌》을 감행하는 한편 조선내에서 파쑈 경찰 테로 제도를 강화하여 공산주의 운동을 위시한 사소한 반일 운동이라도 여지없이 탄압하였으며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1938년에는 《장고봉》 사건을 도발하여 쏘련 령토를 침공하였으며 이 도발 행위가 실패된 후에는 계속 쏘련 령토를 침공할 야욕을 실현하려고 발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조선 인민 혁명군 앞에는 일제의 후방 깊이에서 적들에게 대타격을 줌으로써 적들의 대병력 동원을 견제하며 조선 인민들의 반일 애국 사상과 혁명 승리에 대한 신심을 제고하며 파괴된 혁명 조직들을 복구 정리할 과업이 제기되였다.

1938년 11월 몽강에서 열린 당, 군정 간부 회의는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적들의 소위 대규모적 《소탕전》에 대응하여 단위당 무력 대비에서 아군의 우월성을 보장하면서 대부대로 성시 습격전을 조직하여 적을 대량 소멸하며 동시에 한편으로는 소부대들의 활동을 강화하여 대중을 반일 투쟁에 조직 동원하는 정치 공작을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회의는 인민 혁명군을 수개 방면군으로 편성하고 조선 국내와 동북 일대의 광활한 지역에로 진출케 하며 각 방면군별로 일정한 활동 지역을 담당케 하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 회의에서 명시된 전략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김 일성 동지가 친히 인솔한 제 2 방면군 부대들은 적들의 동기 《토벌》을 격파하면서 100 여일 간의 간고

한 행군 끝에 1939년 4월 초에 장백현 북대정자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당, 군정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지난 겨울 인민 혁명군 부대들의 활동 정형을 분석 총화하였으며 인민 혁명군 부대에게 금후 군사 정치적 활동의 구체적 방향을 명시하였다. 즉 백두산 서남, 서북 일대에 집중된 적의 병력을 분산시켜 각개 격파하고 백두산 동남 및 동북부의 유격 활동 구역을 복구 확장하여 국내에 진군하여 적들에게 대타격을 주며 정치 공작을 강화하여 암담한 처지에 있는 국내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해방에 대한 서광을 비쳐 주며 파괴된 지방 조직들을 복구 정비할 것을 당면한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침에 근거하여 인민 혁명군 제 2 방면군 부대들은 강력한 춘기 공세로 넘어가 세계 로동 계급의 전투적 명절인 5.1절을 높은 전투적 성과로 맞이하며 국내 진출의 물질적 및 사상적 준비를 갖추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기초 우에서 1939년 5월 15일 김 일성 동지의 지휘하에 조선 인민 혁명군 주력인 제 2 방면군 산하 수백명의 대원들은 조선을 향하여 회싸즈거우를 출발하여 5월 18일 오전에 압록강과 소백수 물이 합수진 곳으로 부대를 도강케 하여 청봉산 기슭에서 숙영하였다.

5월 19일 아침 여러개의 소부대들은 근방 마을과 목재 작업소들에 가서 정치 선동 사업을 진행하였다. 8련대 정치위원인 김 일 동지는 목재 작업장을 습격하고 로동자들 속에서 정치 선동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날 부대는 베개봉에서 숙영하고 다음 날 행군을 개시하여 허항령 서쪽 삼지연을 거쳐 갑무(甲茂) 도로 100 여리 길을 백주에 행군하였다.

부대는 밤 12시경에 무봉 부근에서 휴식하고 31일에는 깜쪽같이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 장산령에서 숙영하였다.

이때 중국 땅에 건너선 것은 아군의 행동 방향을 주시하고 있던 적들을 혼란 시키기 위해서였다.

장산령에서 하루 휴식하면서 김 일성 동지는 전 부대에 세밀한 전투 준비를 명령하였다. 그리고 당, 군정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무산 지구에로의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전투 계획을 토의하였다. 작전 계획은 그 규모로 보아 대단히 컸던 것이다.

부대가 진출할 지점은 무산군 로은산구 일대였는바 로은산구는 유무, 삼장을 련결하는 적들의 한 개 요충지였으며 일본 독점 자본인 《북선 제지》 계렬의 목재 작업소들과 소홍단 수를 리용하는 류벌 중심지였다. 따라서 이 고장에는 빈곤한 목재 로동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지구에 진출함으로써 적들의 국경선, 후방을 타격 교란시키며 국내 로동 계급들과 전체 인민들을 반일 투쟁에로 고무 추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로은산구에로의 진출은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로은산구로 진출하자면 두만강 국경선에서 적의 종심으로 10~80 리 가량 되는 개활 지대를 돌파하여야 하였으며 이 개활 지대에서 아군 부대의 진군 철퇴를 보장키 위한 방차대의 조직과 행동의 기동성 및 령활성이 요구되는 것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직접 정찰 성원들과 지방 주민들을 통하여 국경 일대의 군사 지리적 실정과 적들의 국경 수비 정형을 상세히 조사해 가지고 작전을 계획하였다.

이윽고 인민 혁명군 부대는 김 일성 동지가 작성한 작전 계획에 의하여 무산 지구를 향하여 장산령을 출발하였다. 이리하여 김 일성 동지는 행군 도중 수개소에 방차대를 파견하여 홍암, 혜산 방향으로 부터의 적을 방어케 하였다. 주력 부대는 수십리나 되는 대홍단 개활 지대를 돌파하여 국사당 부근에 이르렀는바 이곳에서 김 일성 동지의 명령에 의하여 김 일 동지는 8련대를 인솔하고 신사동 쪽으로 진출하여 창평, 사동 방면의 적을 소멸하고 로동자들 속에서 정치 선동 사업을 진행하며 주력 부대의 군사 정치적 활동을 엄호하게 되였으며 주력 부대는 계속 김 일성 동지의 친솔하에 로은산구로 향하였다. 그리고 로은산구에 이르는 도롱봉 부근에 또 한 개의 구분대를 배치하여 유곡 방면의 적을 방어케 한 다음 부대는 5월 22일 오후 7시에 로은산구에 이르렀다. 로은산구 웃 두지바위 부락 주민 가옥에 김 일성 동지는 지휘부를 설정하고 전투를 지휘하였다.

제 7련대장 오 중흡 동지가 지휘하는 한 개 부대는 로은산구 신개척 부락에 진출하여 로동자들의 협조밑에 《북선 제지》목재 작업소를 습격하였다. 경찰놈들은 혼비 백산하여 도주하고 유격대원들은 일본 십장놈 20 여명을 생포하였다.

이리하여 한 시간 이내 웃 두지바위로부터 신개척에 이르는 15리 어간의 로은산구를 해방하였다. 유격대원들은 목재 작업소 창고내에 산적된 식량과 천을 인민들에게 분배하였다. 로은산구내 전체 인민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조선 독립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를 높이 웨쳤으며 인민 혁명군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정치 공작원들을 마을마다에 파견하여 정치 선동 사업을 진행케 하는 한편 몸소 웃 두지바위 부락 인민들과 장시간 담화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담화에서 일본 제국주의는 반드시 멸망하며 조선 인민의 반일 투쟁은 기필코 승리한다는 확고한 전망에 대하여 감명 깊게 이야기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의 기본 내용들을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서 조선 인민들은 이 장엄한 민족 해방 투쟁에 모두 한사람같이 일떠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망국노의 생활에 억눌리고 천대 받던 인민들은 김 일성 동지의 미더운 이야기에 감격되여 저마다 김 일성 동지께서 밝혀 준 길을 따라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 궐기할 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정치 공작원들과 다른 대원들도 마을 곳곳에서 인민들에게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과 《3.1 월간》의 내용들을 쉽게 해설하면서 반일 투쟁에 궐기할 것을 호소하였다.

로은산구 진출에서 거대한 승리를 거둔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는 이윽고 밤 11시 경에 인민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그곳을 철수하였다.

한편 이때 김 일 동지의 지휘하에 8련대는 신사동에 이르러 적을 습격 및 견제하면서 로은산구 주력 부대의 활동을 보장하였다. 김 일 동지는 로동자들 속에 조국의 광복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넣어 주었다. 그리고 8련대는 철수하면서 적 토벌대와 조우하여 10여명을 살상하였으며 23일 새벽에는 카소링카로 추격해온 일제 경찰대 놈들을 림철 종점에서 격퇴한 후 예정 지점에 집결하였다. 그러나 아직 신개척과 아래'두지바위에 파견된 부대는 집결 지점인 국사당 앞고지에 도착되지 못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집결 지점에 도착한 부대들에게 전투 준비를 갖추게 하고 후속 부대를 대기케 하였다.

23일 아침 8시경 적 국경 수비대와 창평, 와꾸이 경찰대 수백명이 중무기의 엄호하에 대홍단 벌판에 출현하였다. 이때 바로 오 중흡 련대장이 지휘한 신개척 진격 부대가 대홍단 벌판에 당도하여 적과 조우하게 되였다. 적들은 아군 부대를 먼저 발견하였던 것만큼 맹렬한 사격으로 대항하였다. 이때 정면 고지에서 정황을 보고 있던 김 일성 동지는 대기하고 있던 전 부대에 사격 명령을 내렸다. 근 10 여 정에 달하는 경기관총과 수백 정의 보총 사격에 적들은 무리로 쓰러졌다. 한편 김 일성 동지의 명령하에 오 백룡 동지가 지휘

한 경위 중대는 전투장의 동쪽을 우회하여 적을 익측으로부터 타격하였다. 적들은 하는 수 없이 사동과 유곡 방향으로 패주하였다. 때마침 유곡 방향으로부터는 적의 응원대가 오고 있었는데 적들은 저희들끼리 마따 들어 격전하는 추태를 연출하였다.

이와 같이 아군 부대는 대홍단 일대에서 적을 대량 소멸하고 다시 두만강을 건너 올기강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리하여 김 일성 동지의 친솔하에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는 적들의 국경 경비가 강화되고 교통 통신망이 발달한 국내에 진군하여 1주일 간이나 활동하면서 대규모적인 대홍단 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고 두만강을 건너 그후 올기강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조선 인민 혁명군의 무산 지구 진출과 대홍단 일대에서의 전투 승리는 1930 년대 말 이후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조선 인민 혁명군의 무산 지구 진출과 대홍단 일대에서의 전투 승리는 김 일성 동지의 명찰한 령군 예술과 조선 인민 혁명군의 전투적 위력을 다시 한 번 국내외에 시위하였으며 중일 전쟁을 도발한 후 새로운 전쟁 확대를 위하여 광분하고 있던 일제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다.

무산 지구 전투는 1937년 6월 4일 보천보에 높이 오른 해방의 홰'불을 들고 줄기차게 진행되던 국내 로동 운동과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이 일제에 의하여 야수적으로 탄압 당하고 수많은 혁명 조직들이 파괴되였거나 지하 깊이 들어간 암담한 시기에 진행되여 인민들에게 해방에 대한 굳은 신심을 제고하였으며 그들의 반일 투쟁을 힘차게 고무 추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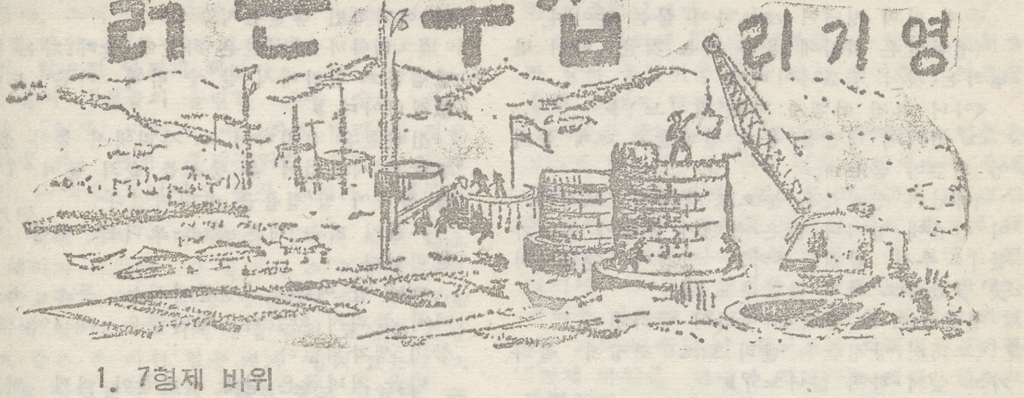
또한 무산 지구 전투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중일 전선에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으면서 1939년 5월 《노몽한 사건》을 도발하여 몽고 및 쏘련 령토를 불법적으로 침공한 환경에서 그의 배후에서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줌으로써 무장으로써 직접 쏘베트 동맹을 옹호하였으며 몽고 인민 공화국과 형제적 중국 인민의 반일 무장 투쟁을 고무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을 발양한 전투였다.

오늘 조선 청년들은 우리 조국 력사에 찬연히 빛나는 무산 지구 전투 승리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조선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확립한 빛나는 혁명 전통을 더욱 철저하게 계승 발전시키면서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위업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킬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붉은 수첩

리기영



1. 7형제 바위

아득한 옛날에 례성강(禮成江)이 생겨 났을 때, 룰탄리 앞강 벼랑 우에는 일곱 개의 바위들이 나란이 솟아 올랐다.

여기를 7성골이라 하고 일곱 개의 바위를 7형제 바위라고 부른다.

전설에 의하면 북두7성의 선관(仙官)들이 옥황 상제께 득죄하고 인간에 적강(謫降)을 하였는데 그들은 천상의 호화롭던 생활과 대비하여 인간은 너무나 쓸쓸하고 적막함을 느끼였다.

더구나 그들이 있는 곳은 례성강이 앞을 가로 막고 뒤에는 7성골의 울밀한 산림 속에서 들리는 것은 오열(嗚咽)한 강물 소리와 락목공산의 바람 소리가 쏴—하게 산'골의 정적을 깨칠 뿐이였다.

그러나 북두7성의 선관들은 할 수 없이 그날그날을 시름없이 보내였다. 오직 그들은 달이 밝은 밤에 은파 만경의 강물을 내려다 보며 옥 퉁소를 구성지게 부는 것을 유일한 위안'거리로 삼았다고 한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가고 새 봄이 돌아 왔다. 7성골 뒤'산 바위틈에도 진달래가 빨갛게 피여났다. 례성강은 얼음이 풀리고 깊은 소(沼)에서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자맥질을 치며 뛰놀았다.

한편 부근 촌락에는 처녀들이 살고 있었다. 마을 처녀들은 봄과 여름철이 돌아 오면 침교천(砧橋川) 맑은 물'가에서 빨래를 하는 것이 즐거움의 하나로 되였었다.

그런데 그들은 전에 없던 퉁소 소리를 듣는 것이 신기하게 생각되였다. 퉁소 소리는 칠성골에서 들리였다. 이에 그들은 호기심에 끌리여 달이 밝은 밤에는 내'가에로 나와서 소풍을 할겸 빨래를 빨기도 하였다.

그날—보름'달이 휑창 밝던날 밤에도 마을의 처녀들은 침교천으로 빨래를 빨러 나왔었다.

월색은 교교하게 밝은데 산들 바람이 불 때마다 앞뒤 산과 풀 언덕에서 봄 향기가 풍겨 왔다.… 7성골에서는 여전히 피리 소리가 처량히 들리였다. 처녀들은 그 소리를 잠착히 듣다가 빨래를 빨군 하였다.

토닥토닥하는 빨래 방치 소리는 마치 퉁소 소리에 화답을 하는듯 장단을 맞추었다.

미구에 퉁소 소리는 뚝 그치고 홀연 일곱 청년들이 처녀들이 있는 빨래터로 나타났다. 처녀들은 달'빛에 비치는 초면부지의 청년들을 마주 대하게 되자 깜짝 놀래여 뒤'걸음질을 치며 물러 섰다. 그러자 한 처녀가 눈'섭이 꿋꿋해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남녀가 유별인데 어인 남자들이 야넌 밤에 녀자들만 있는 이 자리를 무단히 침범하나뇨?》

하고 준절히 꾸짖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소생들은 처자들에게 긴히 청할 일이 있어 왔으니 무례함을 과히 허물치 말라.》

이렇게 한 청년은 대'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정말을 하는 것이였다.

《우리들은 북두7성의 천상 선관인데 불행히 인간 하계로 귀양을 왔노라, 그런데 해가 바뀌였어도 우리들은 아직 인간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여 걱정 중이던 차에 오늘 밤에 처자들이 빨래하는 방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찾아 왔노라, 우리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 가려면 상제의 분부 대로 그대들이 사는 인간을 위하여 공덕을 크게 세우면 빨리 올라 갈 수 있겠으나 만일 아무 공덕도 세우지 못하면 영 올라 가지 못하게 되였으니 우리의 이런 처지를 깊이 동정하여 무슨 일을 했으면 인간 사회에 가장 큰 공덕이 되겠는지 그 방도를 가르쳐 준다면 매우 고맙겠노라.》

처녀들은 그의 말을 다 듣고 나자 저마다 난처한 기색을 얼굴에 띠우며 묵묵히 있을 뿐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다.
《어째 아무 말이 없나뇨?》
둘째 번의 청년이 초조하여 묻는 말이다.
《선관들은 천상에 올라 가는 것을 아여 단
념하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니 그건 어떻게 하는 말이뇨?》
그 처녀의 대답을 듣고 선관들은 크게 놀래
여 되짚어 묻는다.
《아닌가 선관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시라,
이 인간에 얼마나 많은 불행과 부족이 있는가
를! 우선 당신들부터도 인간이 쓸쓸해서
못 살겠다고 하지 않았나뇨?》
선관들도 그 말에는 대답이 궁하였다.
《그래서 당신들은 빨리 도로 천상에 올라
가고 싶어 하지 않나뇨?》
처녀들이 이렇게 종주먹을 대니
《그렇게 생각하노라. 우리들은 한시 바삐
올라 가서 천상 생활을 누리고 싶노라.》
하고 선관들은 솔직히 자기의 심중을 고백
하였다.
《우리 북두7성은 인간의 수명을 맡은 선관
이니만큼 우리의 승천(昇天)을 도와 주면 우
리들은 처자들의 수명을 본래 타고난 것보다
50년씩 각각 더 살게 하여 주겠노라.》
세째 번의 선관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듣자
처녀들은 일시에 간간 대소를 한다.
《아니 장수를 하게 해 준다는데 처자들은
어째 이리들 웃나뇨?》
《불행한 세상에서 오래 살라는 것은 도리여
욕이 되지 않겠나뇨. 그래서 부지중 웃음이
나왔나이다.》
하고 그중 나이 많은 처녀가 다음과 같이
인간의 실정을 설명하여 들리였다.
《우선 인간에 빈부의 차등이 너무 심한데 이
것을 없이 하여 준다면 그 이상 더 큰 공덕이
없겠나이다. 모든 재부는 극소수의 량반들과
부자'집에서 독차지하고 그 밖의 대다수의 백
성들은 가난해서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형
편이외다. 우선 이 지방만 하드라도 논밭이
적지 않지만 전장들은 모두 량반 관리들과 지
주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농사를 짓
는 농민들은 농노와 같이 그 땅을 부쳐서 겨
우 실같은 명맥을 부지하여 가나이다. 이 한
일만 보드라도 당신들은 인간이 왜 이렇게 쓸
쓸한 까닭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나이다.》
선관들은 처녀의 말을 듣고 락심 천만하였
다. 그들은 정말로 인간에 이런 불행이 있는
줄을 몰랐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힘
으로는 인간의 불행을 제거해 줄 능력도 없
었다.

《귀여운 처자들이여! 그러나 우리의 힘으
로는 그대들의 불행을 없이 해 줄 수가 없으
니 어찌하면 좋을는지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늘에 올라 가는 것을
단념하고 인간에서 살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겠나이다.》
선관들은 실심하여 그 자리에서 돌아 섰다.
그들은 시름없이 옥 퉁소를 슬피 불며 7성골
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였다.
그들이 가는 대로 퉁소 소리는 점점 멀리
들리였다.…
그날 밤 이후로 7성골에서는 퉁소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았다. 처녀들은 그것이 또 이
상히 생각되였다.
마을 처녀들은 일곱 선관들이 어찌 되였는
지 몰라서 궁금한 생각이 들어 갔다.
어느 날 저녁 때 그들은 나물을 뜯으러 간
다는 핑게를 대고 7성골로 들어 가 보았다. 그
런데 일곱 선관들은 온데 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고 전에 없던 일곱 개의 큰 바위가 강 벼
랑 앞에 나란이 서 있지 않은가!
…북두7성의 선관들은 다시 천상으로 올
라 갈 가망이 전혀 없게 되자 그만 돌바위로
굳어 버리였다.…

× ×

지하리—평산간 (150리) 철도 부설 공사에
참가할 것을 탄원하여 나선 청년 사회주의 건
설자들—선발대가 례성강반에 도착하기는 195
8년 12월 10일 경이였다.
이날 제 2 대대 선발대는 정치 부중대장 전
인규의 인솔하에 기탄교 부근을 담당하여 탄
교리에 자리를 잡고, 제 3 대대는 7형제 바위
의 초입으로부터 침교천 일경의 구역을 담당
하여 정치부 대대장 한 석천과 제 1 중대장
리 종호의 인솔하에 158 명이 침교리에 도착하
였다.
그들이 찾아 온 례성강반은 매우 추웠다.
례성강은 두꺼운 얼음이 얼어 있고 강 우에는
눈이 하얗게 깔렸는데 세찬 바람이 불 때마다
눈보라를 쳐서 은 가루를 공중에 들날리군 하
였다. 령하 20도의 혹한이다.
정치 부대대장 한 석천은 제 1 중대장 리
종호와 대대 민청 위원장, 직맹 위원장 등과
같이 침교리 리 당 위원장의 안내로 현지 답
사를 나갔다. 그들은 우선 7형제 바위의 초입
으로 들어 섰다.
기탄리에서 침교리로 가는 신작로를 향하여
산'굽이를 돌아 오자면 다시 례성강을 만나게
되는데 철'길은 바로 침교리 못미쳐에서 산뿌
리가 서쪽으로 내민 강벼루를 뚫고 돌아오게
되였다. 그러자면 7성골의 절벽 밑으로 솟은
7형제 바위—12만 립방의 암벽을 몽땅 들어
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들이 7성골의 울밀한 나무 숲과 높이
솟은 7형제 바위가 근감하게 벌려 선 것을
보았을 때, 과연 후리후리한 생각이 들게
한다. 그곳은 대낮에도 혼자 오기가 무시무시
하였다.
한 석천 정치 부대대장은 7형제 바위 밑으
로 내려가 보았다. 강 밑에서 그 바위들을 치
어다 보는 것은 더 한층 장엄하였다. 연장 100
메터에 달하는 거리에 수십 길의 높이를 가진
집채 같은 큰 바위 일곱 개가 벌려 섰는데 그
중에는 자연굴이 크게 뚫린 것도 있었다. 그
바위에는 사람이 서서 들어 갈만한 큰 구멍이
뚫리였다.
세 번째 바위 밑에는 넓다란 반석이 깔려
있다. 그 돌 여가리로 나무가지에다 헝겊과
종이 오래기를 끼운 노끈으로 금'줄을 띠워
논 것을 보면 여기에서 산신제를 지내였던 것
같다.
《이것이 치성터 같은데 지금도 누가 산신제
를 지내는지요?》
한 석천 정치 부대대장은 리 당 위원장을
돌아다 보며 이렇게 물어 보았다.
《강 건너 률탄리 사람들이 아마 그전에 여
기다 산신제를 지냈다나 붑니다.》
리 당 위원장의 대답이다.
그들은 지도(략도)를 펴 놓고 현지와 대조해
보았다.
《철'길이 바로 이 산뿌리를 돌아서 침교리
앞으로 지나 가자면 7형제 바위를 까내지 않고
서는 비킬 데가 없습니다. 만일 비켜 갈 수만
있다면 힘 들이고 바위를 까낼 필요가 없겠지
요.… 이곳에 철'길이 나가는 데 대하여 인민
들의 여론이 어떠한지요?》
정치 부대대장 한 석천의 묻는 말에
《철도가 놓이는 것을 인민들은 매우 좋아합
니다. 이 고장은 자고로 교통이 불편해서 황
해도의 삼수—갑산이라고 일르는 산'골이니
까요.》 리 당 위원장은 미소를 띠우며 이렇게
대'구하였다.
《7형제 바위를 까내는 것은 이만 저만한 일
이 아니요. 우리 제 3 대대의 담당 구간에서
제일 큰 난공사일 것 같은데 불가불 대발파를
할 수 밖에 없겠소이다.》
《그러려면 화약이 많이 들겠는데요. 률탄리
에서도 로인들 중에나 혹시 7형제 바위를 까
부신다면 놀랠는지 모릅지요. 7형제 바위에는
전설이 있답니다.》
리 당 위원장은 7성골에 대한 전설을 대강
이야기하였다.
《아, 그런 전설이 다 있군요. 하긴 그럴듯
한 전설입니다만……》
그날 저녁에 3대대 간부들은 리 당 위원장
과 같이 률탄리를 찾아 가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기로 하였다.
그들은 작업반장의 집에다 동리의 로인들을
모으게 하였다. 한 석천 정치 부대대장이 우선
지하리—평산 간에 철도를 부설하게 된 경위
와 그의 경제적 의의를 설명한 후에 철도가 개
통되면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 큰 보탬이 될
것이며 이 근처 인민들의 생활상에도 막대한
복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해설 사업을 하였
다. 그리고 철'길이 들어오게 하려면 불가불
7형제 바위를 까내야 하겠다는 것을 끝으로
말하였다.
그의 말을 듣자 상투 바람에 탕건을 쓴 70
여 세의 로인이 입을 딱 벌리며 크게 놀랜다.
《아니 7형제 바위를 까내다니요. 무슨 재주
로 그 거창한 바위들을 까낸단 말이오니까?…》
그는 첫마디로 부정을 하려 든다.
《그런 걱정은 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바위를 까부실 자신이 있기에 하려는 것입
니다.》
《그럴 수가 있을가요?… 전 모르겠습니다
만 7형제 바위는 천상의 북두7성 선관이 옥
황 상제께 죄를 짓고 인간에 적강해서 도를
닦다가 여의치 못한 까닭으로 그만 화석(化
石)이 되였다는 옛날 전설이 있답니다. 그래
서 전자에는 7성골에다 매년 산신제를 지내고
그 산의 일초 일목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답
니다. 그 바위의 큰 굴 속에는 귀가 돋힌 대
멩이가 7성골 터를 지키고 있다는데 7형제
바위를 건드렸다가 화를 당하면 어떻게 할려
구요?》
로인은 이렇게 말하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좌중을 둘레둘레 본다.
《할아버지! 그건 옛날에 전해 오던 미신인
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일 큰 굴 속에 긴
짐승이 있다면 그까진 것 잡아 치웁시다. 그
리고 북두7성의 전설에 대하여는 그 화석된
선관들을 그들의 소원 대로 천상에 도로 올려
보냅시다.——우리 인민 정권은 인간을 사회
주의 지상 락원으로 만드는데 천상 선관이 인
간에 남아 있을 하등의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고 정치 부대대장은 껄껄 웃었다. 그러나
그 로인은 별안간 눈을 더욱 크게 뜨고 상대
방을 쳐다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늘로 도루 올려 보낸단 말
씀이오니까?》
하고 진국으로 다시 묻는다.
《굴 속에다 폭탄을 장치하고 심지에 불을
달아 놓으면 그 바위들이 단방에 공중으로 떠

올라 갈테니 두고 보십시요.》

《아니 그게 정말입네까?》

방안에 앉은 사람들은 일시에 모두다 웃었다.

《정말 아니구요. 할아버지! 그러니 아무 념려 마십시요!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은 결코 당신들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으니까요.》

제 1중대장 리 종호가 이와 같이 말하니

《암 그야 두말 할게 없습지요. 참 우리 마을에도 당의 지도로 협동 조합이 생긴 이후에 모두들 얼마나 더 잘 살게 되였기예요.——아따 그 전고 미문의 랭상모다, 밭 관개 공사다, 그게 모두 우리 농민들을 잘 살도록 하려는 선정인 줄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원!》

《그럼 7형제 바위를 까내고 철'길을 놓는데 대해서도 할아버지는 반대가 없으신지요?》

《반대가 무슨 반대오니까. 나라에 리익이 되고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응당 해야겠습지요. 제가 아까 한 말은 옛날부터 전해 오던 것을 말씀 드린 것 뿐이외다. 7성 바위를 무사하게만 하늘로 날려 버린다면 정말 그 선관들도 좋아 할텐데요.… 그들은 오래 동안 인간에서 겪던 귀양살이가 풀리겠으니 말이외다. 히히히…》

로인은 이가 빠진 입을 합죽하게 오무리며 한바탕 웃어대는 바람에 방 안에 앉았던 여러 사람들도 일제히 따라 웃었다.

2. 초기의 곤난성

그 이튿날부터 제 3 대대의 선발대원들은 소대 별로 분공하여 현장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우선 후발대의 거처를 마련해 줄 필요에서 합숙소를 짓지 않으면 안되였다. 집을 질 재목으로는 먼 산에로 가서 통나무를 베여 와야 했다.

선발대원들은 림시로 침교리와 률탄리의 민가를 얻어 들었다. 주민들은 그들에게 아래'방을 내여 주고 자기네는 웃간에서 거처하였다. 식전에는 물을 끓여서 더운 물로 세수를 하게 해 주었다.

제 3 대대에는 녀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남자 대원들과 현장 작업에서 경쟁을 하였다.

녀성 분대의 작업에서는 언제나 리 덕순 처녀가 앞장을 섰다. 그는 아직 스무살 밖에 아니 되였으나 나이에 비하여 숙성하고 체격이 건실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중로동을 하여 보기는 생후에 처음이다. 그들은 큰 골 뒤'산까지 10 리가 넘는 데로 남자들과 같이 나무를 베러 갔다.

산에는 눈이 쌓여서 어떤 데는 오금까지 빠졌다. 가파른 산'길로 올라 가는데는 한 걸음을 떼여 놓으면 열 걸음씩 쩍쩍 미끄러졌다. 간신히 산 중턱까지 기여 올라 갔을 때는 숨이 턱에 닿아서 정신이 뺑뺑 돌아 갔다.

그들 중에는 열 7—8 세 밖에 안되는 소녀들도 끼워 있었다.

첫날에는 더욱 애를 먹었다. 그들은 빈 몸으로도 올라 가기가 힘드는데 산'비탈에서 남자들이 도끼로 찍어 넘긴 물통나무를 산 밑으로 굴려 내리기나 걸목을 친 그 나무 토막을 목도를 메여서 현장까지 가져 오기가 여간 대견하지 않았다. 삭풍은 귀를 떼는듯 아리고 손과 발은 얼어서 남의 살 같이 감각이 없었다. 그런데 미끄러운 산'길을 걷다가 엎어지고 나자빠지고 뒹굴고 하는 대로 그들은 손'등을 걸커메운다, 코'방아를 찧는다, 옷을 찢긴다 하는 갖은 졸경을 다 치루었다.

하나 그들은 이를 옥물고 끝까지 악전 고투를 계속하였다. 당이 준 공산주의 발기자라는 영예를 지닌 청년 철도 건설자의 대오에 끼워와서 이만 일을 감당하지 못한 대서야 당초에 탄원해 온 본의가 어데 있는가. 이에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도와 주면서 하루 해를 가까스로 넘기였다. 그들의 작업은 정말로 자연과의 격렬한 투쟁이였다.

저녁을 먹고나니 그들은 온 몸이 홧홧 달아 오르며 사지가 느른하다. 마치 그들은 늘씬하게 뭇매를 뚜드려 맞은 것 같이 전신이 아니 아픈 데가 없다.

그들 중에서 제일 건강한 리 덕순이도——물론 그가 힘든 일을 더 많이 하였지만——맥이 빠져서 늘어졌다. 그들은 제가끔 만일 이 상태로 간다면 래일은 일어나지도 못하겠다고 은근히 근심들을 하였다. 그런데 한잠을 푹 자고나니 새 기운이 솟아 나왔다. 대체 이 기운은 어데서 생기는 것일가?

다음 날은 첫날보다 일을 하기가 한결 쉬웠다. 그도 그럴 것이 첫날은 일의 두서를 모르고 평생 처음 해 보는 중로동이라는데 처녀들은 자겁을 먹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루 일을 체험해 보니 그들도 하면 된다는 자신이 생겨났다. 남자들은 별 사람이냐? 녀자들도 하려고만 결심하여 나서면 못할 일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그 이튿날에도 그들은 큰골 뒤'산으로 나무를 베러 올라 갔다. 리 덕순은 어제 녀자라고 깔보던 청년이 소나무를 베는 데로 우정 찾아가서 그의 도끼를 잡아 뺏았다.

《동무는 좀 쉬시오. 내가 한 번 베 보겠수다.》

《아니 녀자가 무슨 나무를 베겠다구… 그만 두라요.》

하고 그 청년은 여전히 녀자를 깔보는 언투로 말하며 도끼를 도로 뺏으려고 달려든다.

《동무의 사상은 옳지 않아요. 녀자를 멸시하지 말아요! 나도 동무만큼 나무를 벨테니 지켜 서서 보세요.》

리 덕순은 이렇게 대'구하며 두손으로 도끼를 둘러 메자 있는 힘을 다하여 나무의 대밑둥을 내려 찍었다. 그렇게 십여 번을 내려 찍고나서 안쪽으로 대여섯 번을 찍으니 기둥'감이 실한 통나무가 찌드득 소리를 내며 산'비탈로 넘겨 박힌다.

《자— 이래도 녀자는 나무를 못 벤단 말입니까?》

리 덕순은 도끼를 땅에 놓고 이마에서 구슬땀을 씻으며 그 청년에게 오금을 박아 주었다.

《그 색시 흩으로 볼 게 아닌데… 잘못 했수다. 용서하시우.》

맞은 편에서 일을 하며 이 광경을 바라 보던 청년들이 와그르 웃음통을 터친다.

《요새 처녀들을 옛날 쪽으로 알았다가는 공연히 큰일나지.》

《그 참 웬 기운이 그리 세담…》

《기운이 세게 아니예요. 암만 해도 체력은 남자들이 더 있겠지요.》

《그렇데?…》

《사상의 힘이예요.—공산주의 교양을 받는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는 강한 사상을 가졌기 때문이예요. 이야기는 그만 두고 어서 일을 해야겠어요.》

《네, 명령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알고나 지냅시다. 누구신지요?》

《난 리 덕순이예요.》

《리 덕순 동무! 난 함흥 기관구에서 온 김충걸이요.》

《알겠어요. 앞으로도 경쟁을 해 보자구요.》

《해 봅시다. 좀 겡기지만…》

청년들은 또다시 웃음통을 터치며 제가끔 일'손을 붙잡았다.

× ×

그후 닷새가 지나서 후발대가 도착하였다. 마침 그 때는 점심 휴식 시간이였다.

선발대원들은 모두 큰 길'가로 나와서 트럭에서 내리는 그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녀성 대원들은 후발대로 오는 녀성들을 환영하였다. 리 덕순은 그와 구면인 북청에서 오는 전 숙희를 반가이 맞았다.

《동무들은 먼저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고생은 무슨—우리들은 그 사이에 벌써 많은 일을 배웠는데.》

하는 리 덕순의 말에 이어서

《덕순 동무는 남자들 볼 쥐여 지르게 힘찬 일을 잘 하기 때문에 녀장수란 소문이 났대요.》 선반공으로 일하던 배 용월이가 호호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워낙 덕순 동무는 건강하니까… 그런 별명을 들을만도 하겠지.》

위생 지도원 박 인옥이가 말 참례를 하며 웃는다. 그는 이번에 부처가 같이 왔는데, 그의 남편 방 상문은 제 2 대대에 편입되여 단교리에서 떨어졌다. 그것은 그가 자청하여 그렇게 한 것이였다.

이날 후발대를 인솔해 오기는 제 3 대대장 고 국경이였다. 그는 중성 두 개를 단 제복을 입었는데 검은 가죽 장화를 신고 대모테 안경을 썼다. 작은 키에 딱 바라지게 생긴 그는 간부의 위신을 복장으로부터 차리려는 것과 같았다.

정치 부대대장 한 석천은 대원들과 똑같이 청색 작업복을 입고 로동화를 신었다. 그것은 고 국경의 옷 차림과 좋은 대조가 되였다.

고 국경은 먼 길에 오느라고 피로하다는 리유로 그날은 현장에도 나가 보지 않았다.

저녁에 제 1 중대장 리 종호가 고 국경 대대장을 찾아 갔다. 그는 그동안의 사업 경과와 현지의 형편을 대강 보고하였다. 그리고 래일부터는 합숙소를 지어야겠는데 현장이 가까운 곳에다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다.

《합숙소는 새로 지어서 무엇하오, 두어 달 지나면 가 버릴걸… 민가를 리용하고 숙소는 짓지 마소.》

뜻 밖에도 대대장의 말은 이렇게 나온다.

《민가가 어데 그리 많습니까, 우리 선발대원들도 간신히 주접을 하였는데요.》

《아따 그럭저럭 변통하면 될 수 있소. 그만 두시오!》《………》

리 종호 중대장은 더 말해야 소용이 없을 줄 알고 대대장실을 나와 버렸다. 그는 나오며 생각해도 도무지 대대장의 심사를 알 수 없었다. 무슨 리유로 합숙소를 못 짓게 하는가? 현지의 실정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주관 대로 덮어 놓고 내리 누르려고만 한다.

그 길로 그는 정치 부대대장을 찾아 가서 이 사유를 말하였다. 정치 부대대장 한 석천은 한참만에 입을 열었다.

《그럼 숙소는 차차 토의해서 짓기로 하고 우선 부재 공장을 건설합시다.》

《네 알았습니다.》

제 1 중대장은 새로 온 녀성 대원들의 거처를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 갔다.

녀성 대원들은 모두다 제 1 중대에 소속되였던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민청 생활의 기본은 규약을 준수하는 데 있다

지 장 린

지난 4월에 소집된 민청 중앙 위원회 제 8차 전원회의에서는 변천된 우리 나라의 환경과 새로운 혁명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민청 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민청 단체들의 사업 수준을 더욱 높일 데 대한 과업들을 토의 결정하였다. 전원 회의는 특히 민청 대렬을 공고히 함에 있어서 초급 민청 단체의 자립성과 전투력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초급 민청 단체의 자립성과 전투력은 우선 매개 민청원들이 민청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할 때에 제고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민청원들이 민청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그들이 규약상 원칙과 민청 생활의 제 규범을 정확히 지킬 때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민청 규약에는 민청의 성격과 임무 그리고 민청원의 의무와 권리, 민청의 조직 원칙과 조직 체계 등 민청 생활과 사업의 질서와 규률이 규정되여 있다. 민청 규약은 민청원들의 사상과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며 민청을 규률 있고 전투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민청의 투쟁 목표와 과업을 성과 있게 실현하기 위한 민청 생활의 기초로 되는 문헌이다.

민청 중앙 위원회 제 4차 전원 회의 결정 실행 행정에서 규약상 제 규범에 기초한 민청원들의 조직 사상 생활이 점차 강화되였고 초급 민청 단체의 자립성과 전투력이 제고되였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민청 중앙 위원회 제 8차 전원 회의가 비판한 바와 같이 일부 민청원들은 민청 규약을 잘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일부 민청원들은 민청원의 초보적이며 기본적인 의무인 맹증 보관을 소홀히 하며 맹비를 제때에 잘 납부하지 않으며 민청 회의와 민청 학습에 잘 참가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맹적 이동을 제때에 하지 않으며 민청 조직의 위임을 성실히 집행하지 않으며 사업 정형을 민청 조직에 잘 반영하지 않고 있다. 부분적인 인테리 청년들과 생산 협동 조합 내 민청원들의 민청 생활은 심히 불성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초급 민청 단체들에서는 민청원들의 이와 같은 비조직적인 행동들에 대하여 제때에 시정할 대책을 취하지 않고 방임해 두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결과 일부 민청원들은 로동에 성실하지 못하며 국가 협동 단체 재산을 아끼고 사랑할 줄 모르며 집단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며 공중 도덕과 질서를 문란히 하는 현상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행동들은 다 민청 생활을 충실히 하지 못한 데로부터 발로된 민청원 답지 못한 행동인 것이다.

매개 민청원들에게 있어서 민청 생활의 기초인 규약을 준수하는 것은 제 1차적 과업이며 영예로운 임무로 된다.

매개 민청원들은 우선 규약에 규정된 민청원의 의무를 자각적으로 실행하며 부여된 권리를 옳게 행사하여야 한다. 민청원들은 규약상 생활 규범에 기초하여 민청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특히 초보적인 민청 생활 규범부터 잘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민청 회의와 학습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맹증을 귀중히 보관하고 맹비를 제때에 납부하며 민청의 위임을 잘 실행해야 한다.

민청 규약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민청원들이 민청 규약에 대한 학습을 일상적으로 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인식하여야 한다. 현 시기 민청원의 절대 다수가 민청 생활 년한이 짧은 조건하에서 규약 학습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청 규약에 대한 학습은 그의 매개 조항을 단순히 외울 것이 아니라 일상적 민청 생활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제 생활에서 그것이 구현되도록 하는 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민청원들의 민청 규약에 대한 자각적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초급 민청 단체 집행 위원회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초급 민청 단체 집행 위원회는 민청원들 속에서 민청 규약이 가지는 의의와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철저히 침투시키여야 한다. 더우기 민청원들에 대한 민청원의 의무와 권리, 맹원증의 보관, 맹비 납부, 맹적 수속, 총회 및 학습회 등 민청 생활의 초보적인 규범에 대한 교양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규약상 제 요구들을 전반적으로 준수하도록 일상적으로 지도 방조하여야 한다. 특히 초급 민청 단체들은 일상적으로 미조직 청년들과 접촉을 강화하여 그들에게 당 정책을 침투함과 함께 민청 규약을 구체적으로 해설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전체 민청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통일된 행동을 취할 때 민청의 기본 조직인 초급 민청 단체의 자립성과 전투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민청 대렬은 전투적인 강철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져 당이 제시하는 혁명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어미 토끼 한마리에서 710마리를!



지난 해 어느 날 밤 한 토끼가 단번에 열 다섯 마리의 새끼를 놓았다. 토끼에게는 젖 꼭지가 여덟개 밖에 없다. 그런데 열 다섯 마리를 놓았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누구나 새끼들을 죽였지 별 수 없다고들 했다.

며칠 후 새끼들을 자세히 살펴 보니 새끼들이 고르롭지 못하고 어떤 놈은 강하고 어떤 놈은 약했다. 그래서 약한 놈과 강한 놈을 구분하여 약한 놈은 어미 토끼에게 붙여 두고 강한 놈들을 따로 떼여서 세 시간만에 한 번씩 어미 토끼의 젖을 먹이고 인공 영양을 주었다. 그러면서 어미 토끼에게는 연한 배추를 넣은 《천국밥》을 주어 젖이 많이 나도록 하였다. 결과 한 마리의 손실도 없이 잘 기를 수 있었다.

나는 종부 조직과 사양 관리를 기술 규정 대로 잘 하여 어미 토끼 한 마리에서 년간 668마리를 낼 것을 결의하였다.

나의 이 계획은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의혹을 자아내게 하였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여도 토끼 한 마리에서 대체로 년간을 통하여 64마리의 새끼를 내는 것이 보통이였고 많아야 100마리 정도였다.

주위 사람들의 시비를 듣고 보면 까놓고 말해서 얼떨떨해지는 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대담성과 공상이 없이야 어떻게 천리마 시대에 사는 청년이라 하겠는가?》라고 한 민청 위원장의 말은 나를 크게 고무해 주었다. 또 나에게는 꼭 실천할 수 있는 자신과 근거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한 마리의 어미 토끼가 단번에 열 다섯 마리의 새끼를 낳은 경험에 기초하여 어미 토끼는 년간 10배를 낳게 하여 매번 분만에서 평균 여덟 마리의 새끼를 낳게 한다. 낳은 새끼 토끼 중에서 매번 4 마리의 암토끼를 낳을 것을 예산하여 그를 5개월 만에 종부를 시켜서 6개월 후에 첫 새끼를 낳게 한다. 이렇게 해서 6 월부터 분만하는 4 마리의 새끼 토끼는 6배에서 168마리, 7월부터 분만하는 새끼 토끼는 5배에서 140마리, 8월부터 분만하는 새끼 토끼는 4배에서 112마리, 9월부터 분만하는 새끼 토끼는 3배에서 84마리, 10월부터 분만하는 새끼는 2배에서 56마리, 11월에 분만하는 새끼 토끼는 1배로서 28마리를 각각 낳게 한다면 어미 토끼 한 마리에서 년간 668 마리의 토끼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는 우선 사양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사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료 급여 조직을 잘 하는 것이다. 나는 종전에 3회에 걸쳐 낮에만 주던 것을 여름에는 하루에 5~6회, 겨울에는 4~5회씩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사료를 주었다.

그 다음은 젖 먹이는 어미 토끼의 젖을 많이 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래 나는 이런 어미 토끼들에게 다즙 사료인 청사료(산간 지대에서 보장하기 쉬운 크로바, 배추 등)를 먹이면서 매일 대두박을 10그람 정도씩 주었다.

또한 사양 관리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언제나 토끼 우리를 깨끗이 거두어 주는 것이였다. 나는 늘 습하지 않도록 매일 토끼 우리를 청소해 주군 했다.

분만할 때에는 토끼를 놀래우지 말아야 한다. 그래 나는 일상적으로 특히 분만 시기에는 사람은 물론 개, 고양이 지어는 쥐까지도 드나들지 못하게 조심하였다. 토끼 새끼를 많이 내기 위하여서는 종부 조직을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종부 적기를 알아 내고 제때에 종부를 시키는 한편 종부 및 분만 대장을 만들어 기입함으로써 종부와 분만된 토끼 구별을 쉽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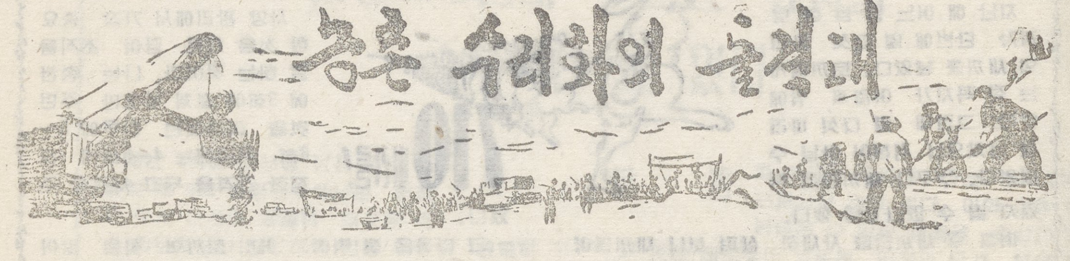
이와 함께 종부시킨 암토끼가 새끼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하여 종부시킨 5~6일 후이면 의례히 암토끼를 수토끼 상자에 넣어 보았다. 이렇게 해서 교미에 응하는 것은 새끼를 배지 않은 토끼로 인정하고 교미에 응하지 않은 토끼는 새끼를 가졌다고 인정하였다.

차차 토끼 사양 기술을 습득하게 된 나는 이중 반복 종부를 시킨다면 더 많은 새끼를 얻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내가 기르던 10 마리의 어미 토끼에게 적기에 이중 반복 종부를 실시한 결과는 1월에는 81 마리, 2월에 와서는 82 마리를 냈다. 나는 여기에서 어미 토끼 한 마리에서 년간 710 마리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자신심을 가졌다.

나는 함북도 당 확대 전원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수상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우리 종축장 앞에 나선 제 1차 5개년 계획을 여러 민청원 동무들과 함께 금년 8. 15전까지 2년 4개월 앞당겨 완수하기 위하여 힘껏 일할 결의를 다지고 있다.

국영 삼수 종축장

장 일 순



함남도 흥상군 추상 청년 저수지 공사장에서

언제의 기리 420 메터, 높이 25 메터, 너비 11 메터 그리고 10 키로메터의 수로를 가진 추상 청년 저수지 제 1계단 공사가 예정 기일을 한 달 앞당겨 지난 4월 29일에 완공되였다.

600 정보의 밭과 논을 관개할 수 있으며 2,000 정보의 밭과 논을 보호할 수 있는 추상 청년 저수지 공사는 이 고장 농민들이 대대로 재해를 모르는 농사를 지어 봤으면 하던 골수에 사무친 소원을 풀어 주게 된다.

우리 당 9월 전원 회의는 농촌 수리화에 대한 방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당의 붉은 편지에 고무된 남녀 청년들은 당의 호소를 남 먼저 실천할 결의 드높이 곳곳에서 삽과 괭이를 메고 공사장으로 달음질쳐 왔다.

공사장에는 난관도 많았고 또 예기치 않았던 애로도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던 미제를 굴복시킨 그런 용감성으로, 석달이나 계속된 혹심한 가물을 물리치고 370만 톤의 알곡을 생산해낸 그 지혜로 온갖 난관과 애로들을 물리치면서 공사를 진척시켰다. 청년들의 이런 용감성과 지혜는 오직 우리 당에 의하여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전통으로 교양 육성된 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은 공사의 어려운 고비마다 홰'불 모임을 조직하여 혁명 선배들의 혁명 정신과 고상한 도덕 품성들에 대하여 토론하면서 학습하였다.

또한 청년들은 서적 《혁명을 위하여》 감상회를 조직하고 혁명 선배들처럼 열렬히 조국을 사랑할 것을 맹세하군 하였다. 《녀성 돌격조》의 이름은 이 공사장만이 아니라 부근 농촌의 자랑으로 되고 있다.

《녀성 돌격조》는 중심 강토 굴착 공사를 담당했었다. 그런데 공사는 굳은 암반과 부딪치게 되였다. 이것은 한다하는 남자들도 힘에 겨운 일이였다. 작업은 뜻 대로 진척되지 않았고 전반적 작업에 지장을 줄 위험성이 있었다. 그래서 한 춘화, 주 히순, 주 갑숙 동무들은 저마다 몰래 야밤'중에 공사장으로 나갔고 나가면 의례히 남 몰래 나온 다른 동무들을 만나 함께 작업하군 했다. 그리하여 누구의 발기라 없이 《녀성 돌격조》에서는 《새'별 보기 운동》이 벌어졌고 새벽 3시에 함마와 정을 메고 일터로 나가 발파 구멍을 뚫고 화약을 장약하고 나중에는 불까지 달았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책임을 훌륭히 감당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녀성 돌격조》가 담당한 구역에서 뽐프 고장으로 잠시 동안에 물은 언제를 넘을 번 하였다. 지금까지 애써 쌓아 올린 언제가 물에 허물어질 이 위험한 순간에 무엇을 주저하랴! 아직도 살얼음이 낀 물 속으로 처녀들은 뛰여 들었다. 그리하여 24시간 꼬박 물과 싸워 끝끝내 언제를 구원하였다. 이렇듯 《녀성 돌격조》원들은 공사의 어려운 고비마다에서 영웅적으로 투쟁하였다.

지난 3월 25일에 있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는 이곳 저수지 공사에 동원된 청년들의 투지를 더욱 고무하여 주시였다. 그때 김 일성 동지께서는 공사를 진척시킬 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치시고 《이런 일은 우리 공산주의자들 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대단히 좋은 일을 이곳에서 하고 있다. 이런 좋은 일을 해야 인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다》고 고무하여 주시였다.

김 일성 수상의 현지 교시가 있은 즉시로 공사 지도부와 진지한 협의 밑에 련대 민청 위원회는 궐기 대회를 열고 1계단 공사를 기한 단축하여 5.1절 전으로 끝낼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그런데 이 과업은 쉬운 것이 아니며 이것을 실천하자면 무엇보다도 모든 작업을 기계화하며 작업 능률을 종전에 비해 몇 배로 높여야 했다.

련대 민청 위원회는 이미 운영되고 있던 기계화 도입 중대의 역할을 더욱 높이며 창의 고안 운동을 더 활발히 전개할 것을 집체적 토의에 부쳤다. 이리하여 청년들 속에서 기계화 도입을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다.

수상 동지가 다녀가신 후 한 상윤 동무의 생활에서는 커다란 변동이 생겼다. 《기계화를 도입하여 일을 헐하게 하면서 능률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그이의 교시를 어떻게 하면 하루 속히 실천할 수 있을가 하고 밤낮 없이 궁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단번에 한 톤 반을 운반할 수 있는 《공중 삭도》를 창안할 것을 결심했다. 그러나 일은 쉽게 잘 진척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밤 꼬박 새우는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해내지 못할 일인가부다 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었다. 이런 때면 언제나 수상 동지의 그 정겨운 미소 띤 얼굴이 눈 앞에 환히 떠오르면서 《이런 좋은 일을 해야만 인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다》고 하시면서 그의 약한 마음을 부축하여 성공에로 이끌어 주었다. 한 상윤 동무는 수상 동지를 언제나 몸 가까이 느끼면서 그이와 함께 창안 사업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했다.

그리하여 《공중 삭도》는 완성되여 작업에 도입되였다. 어찌 이것이 한 상윤 동무 한 사람만의 생각이랴! 이곳 모든 청년들이 수상 동지와 함께 일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했고 이런 마음들이 작업 능률을 세 배, 네 배 올리게 했고 기계를 창안했던 것이다. 또 이곳 청년들의 집체적 지혜에 의하여 420 메터의 거리를 한 번 다지는데 100 명의 로력을 절약할 수 있는 《흙 다짐기》도 창안하였다.

공사의 마감 단계에는 탈선을 방지하고 밀차의 회전률을 높여 흙을 되도록 빨리 운반하는 작업이 중요하였다. 그리하여 김 호선 동무를 중심으로 한 흥상읍 중대는 전 련대에 사회주의적 경쟁을 호소하였다. 흥상읍 중대는 《흐름식 작업 운동》, 《한 밀차 더 빨리 밀기 운동》을 전개하여 토운차 회전률을 50회로부터 70회로 높이였다.

이리하여 김 일성 수상의 현지 교시가 있은 후 작업 능률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김 일성 수상의 방문을 높은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겠다고 결의한 단야공 한 세훈 동무는 매일 계획을 300% 이상 실천하였다. 또한 채 규덕 동무를 중심으로 한 기술 중대원들은 토운차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선로반을 재조직하고 든든치 못한 레루를 자기들이 수집해 온 것으로 교체하였다.

이곳 청년들의 드높은 기세에 의하여 1계단 공사는 기한보다 1개월 앞당겨 5.1절 전으로 완공함으로써 먼저 150정보의 메마른 밭과 논에 생명수를 대일 수 있게 되였다.

제 1계단 공사를 앞당겨 수행한 이곳 청년들은 이 저수지 공사를 금년 10월까지 전부 완공함으로써 년 4,000 톤 이상의 알곡을 더 생산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또한 담수 양어, 과수 재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곳에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흥상군내 전기를 해결할 것도 계획하고 있다.

본사 기자 윤 현주

전변된 생활

—평양시 차륜 수리 생산 협동 조합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조합에 갓 들어 왔을 때에는 이전 날의 여러 가지 일들이 머리를 추켜들고 일어나서 좀채로 일에 마음을 부치지 못했었다. 많은 청년들이 자기 리해 타산에만 눈이 돌아갔고 집단 생활에 휩쓸려 들려하지 않았다.

한 광일 동무는 조합에 들어오기 전에 자전차 수리업을 하고 있었는데 조합원이 되자 바로 그 자리에 분작업장을 차려 놓고 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는 이젠 일일히 남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야 되였고 게다가 조합에 들기 전엔 제 주머니 속에 고스란히 들어 가던 삯전을 조합에 들여 놓고 보니 일할 재미가 없다는 것이였다. 그래 그는 툭하면 나가 눕기가 일수였다.

조합 민청 단체는 이런 그에게 여러 번 충고를 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고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집단의 방조를 귀찮게 생각했다.

그리던 어느날 그와 한작업장에서 일하는 선반공 한 상갑 동무와 브리가다장과의 사이에 말다툼이 벌려졌다.

온 작업장 안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집중되였다. 한참을 옥신각신 야단이더니 상갑 동무는 《…난 그 일은 못하겠소》라고 뿌리치며 밖으로 뛰여 나가고 말았다.

그는 어찌나 리기적인 청년이였던지 조합 일은 아무리 애써 한다 해도 낮은 프로 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이였다. 그는 한 대 밖에 없는 선반 기대를 멈춰 세워 놓은 채 외부에서 의뢰하여 오는 부속품을 가공하겠다고 기다리겠다는 것이였다.

옆에 서 있던 동무들까지도 어처구니 없는 상갑 동무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격분을 느끼고 충고를 해 주었다.

이때 한 광일 동무 역시 딴 동무들과 같은 심정이였던 터이므로 한마디 할가 하다 그만 돌아 서서 밖으로 나와 버리고 말았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린다》는 격으로 네가 상갑이 보다 나은게 무엇인가?)이런 생각이 들게 되자 그는 그만 돌아 서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밖에 나와 가만히 생각하면 할 수록 상갑의 행동은 확실히 옳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였다.

(내가 왜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을가? 서로 잘 살자고 택한 이 협동화의 길을 마다고 하면 도대채 어쩌자는 건가?…)이렇게 자신을 돌이켜 본 그는 그길로 조합 민청 위원장을 찾아 갔다.

여지껏 친절히 일깨워 주던 동무들의 충고를 저바린 지난 일을 뉘우친 그는 자기의 잘못을 털어 놓고 이야기하고 새롭게 살 것을 결심하였다.

민청 단체는 당 단체의 지도 밑에 민청원들 속에서 발로되고 있는 락후한 현상과의 강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우선 한 상갑 동무의 문제를 광범한 민청원들이 토론하게 하는 한편 이러한 행동은 어데까지나 썩어 빠진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이라는 것을 꾸준하게 해설해 주고 설복시키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자고 발 벗고 나선 사회주의 건설자들과는 인연이 먼 더러운 버릇들이라는 것을 거듭 충고하여 주었다.

이들 속에서는 여태까지 그저 어루만져서 슬쩍 그때 그때를 넘겨 버리고 지내던 일들이 날카롭게 비판되였다. 그리고 상갑 동무의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와 류사한 자기 자신들의 결함들을 뉘우치게 되였고 점차 사소한 것이라도 제때에 서로 충고를 주고 깨우쳐 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여 갔다.

한 상갑 동무는 처음엔 좀채로 꺾이려 들지 않았으나 날을 따라 자신의 리기적이며 자유주의적인 행동들을 하나 둘 고쳐 나갔다.

이제는 팔짱을 끼고 작업 능률이 오를 일'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수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껏 제 과제를 다 해본 일이라군 없던 그가 지난 3월에는 조합에서 최고로 자기에게 맡겨진 생산 과제를 넘쳐 했다.

한 광일 동무 역시 남달리 노력했다. 차차 일에 마음을 부치게 되고 집단 속에서 생활하게 되자 그는 더욱 자신의 락후하였던 개인 리기주의 사상을 뉘우치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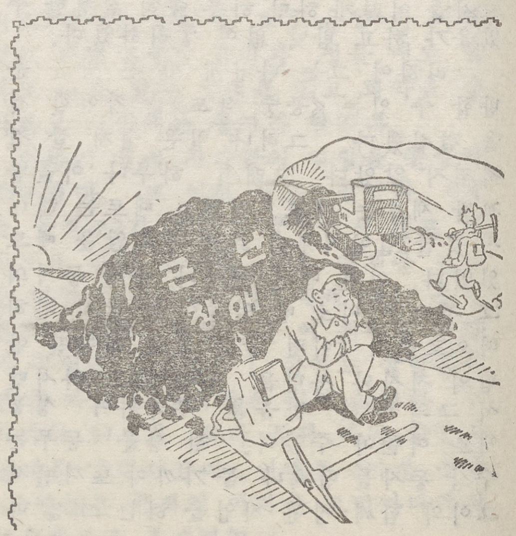
그리고 그날 그날 찾아 오는 손님들의 수에 머리를 앓아야 될뿐 아니라 남의 눈을 속여가면서까지 푼'돈을 더 받아 내려고 애쓰던 지난날의 불안한 생활에서 벗어나 안착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더욱 당이 펼쳐 놓은 광활한 협동화의 이 길만이 오직 조합원들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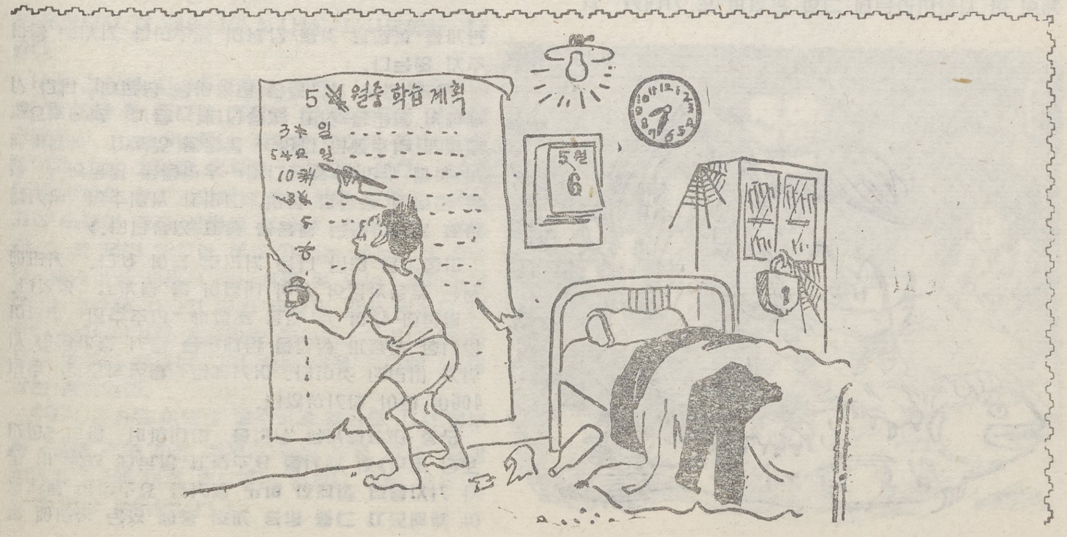
그는 지금 조합에서 조직되는 기술 전습회를 통하여 5급의 기능을 가진 당당한 산소 용접공으로 되였을 뿐 아니라 민청 조직 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계속 개조하기에 힘 쓰고 있다.

보람찬 로동을 통해서 사회주의 건설자의 긍지 높이 조합 일에 주인답게 참가하고 있는 것은 비단 이 청년 뿐이 아니다.

이 조합 민청 위원장인 길 수현 동무와 같이 일용 잡화상을 하던 자기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자신들이 흘린 땀으로 행복을 창조하는 사회주의 건설자로 된 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자의 영예를 지니고 보람찬 로동을 하고 있다.

본사 기자 윤 세용







만수의 세계 려행

일본에서

글 최무용, 그림 장기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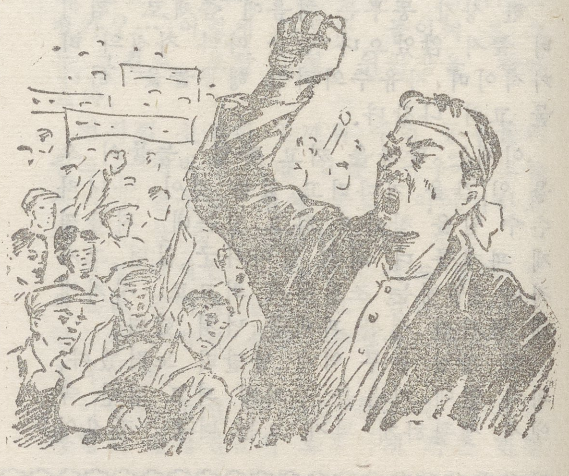
내가 탄 로케트는 확실히 일본 도꾜를 향해 날아 가고 있었다. 그런데 웬 일인가! 바다에서나 륙지에서나 나붓기는 것은 미국 국기인 성조기 뿐이다. 일본 령해를 성조기를 단 군함들이 새까맣게 밀려 다니며 공중에서는 미국 전투기들이 잠자리 떼처럼 날아 간다. 부사산 상공을 지날 때 나는 남조선에서 미국놈들이 우리 나라의 귀중한 문화 유산들을 략탈해 가듯이 혹시 부사산도 미국놈들이 떠다가 미국에 가져온 것이나 아닌가?고 생각하였다. 나는 도꾜의 하네다 비행장에 외롭게 나붓기고 있는 일본 국기를 보고서야 이런 착각에서 깨여날 수 있었다.

나는 비행장에서 마침 중국으로 떠나는 일본 민간 무역 대표를 환송하기 위해 비행장에 나온 한 잡지사 주필을 만났다. 그는 나를 반가이 맞이했다. 아마 내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언론계의 한 사람이라는데 그의 관심과 또 기대가 있었던 모양이다.

《일본은 태평양 속에 떨어진 미국의 땅'덩어리 같군요.》 오랜 직업적 센스로써 나의 말의 뜻을 인차 깨달은 그는

《지당한 말이요, 그러나 그 뿐 만이 아니요, 아마 당신이 일본을 좀더 관찰한다면 환멸을 느낄 것이요.》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일본 경제는 지금 원료 문제와 시장 문제에 부닥쳐 곤경에서 헤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의 린접 국가들인 중국과 조선, 쏘련과 광범히 통상을 해야겠는데 미국 사람들의 방해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고 계속 미국에서 높은 가격으로 원료를 수입해 들이고 있다. 그러니 제품의 원가는 높아지고 인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국제 시장에 나가서는 팔리지 않으니 경제는 쇠퇴될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 인민들은 중국과 조선과의 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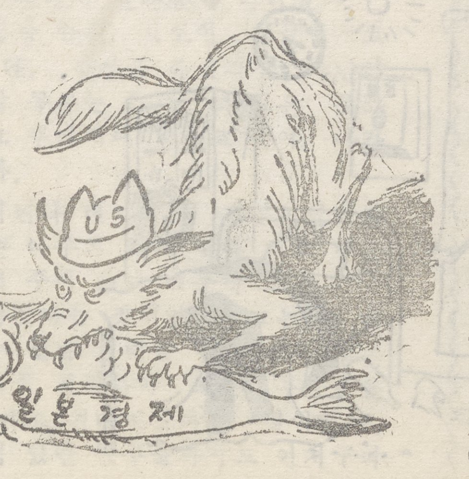


관계를 설정할 것을 강경히 요구하나 기시는 들어주지 않는다.

《우리 일본 사람들은 번영하는 당신의 나라 경제에서 교훈을 찾고 있습니다. 글쎄 경제적으로 그렇게 락후했던 나라가 일본을 앞서고 아세아에서 첫째 자리에 오르다니…우리들은 일본의 살'길은 평화적 공존과 중립,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통상이라는 결론을 찾고 있습니다.》

비행장을 떠난 나는 거리로 들어 갔다. 거리에서는 로동자들의 시위 대렬이 물'결치고 있었다.

일본의 40여 개 로동 조합과 민주주의 정당이 발기한 전쟁과 실업을 반대하는 춘기 총파업과 시위가 벌러진 것이다. 여기에는 전국적으로 무려 400여 만이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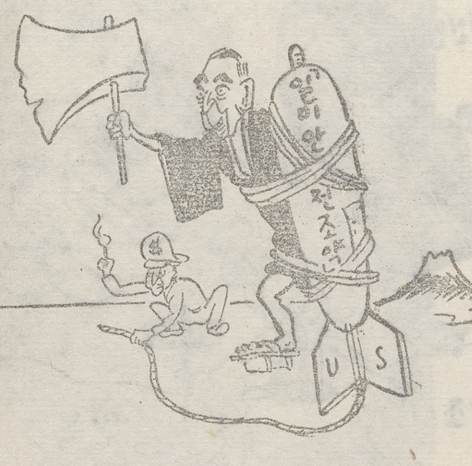


군중 대회에서는 실업을 반대하며 일미 《안전 보장 조약》의 폐기를 요구하고 일본에 있는 미 군사 기지들의 철폐와 미군 철거를 요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고 그를 방금 개회 중에 있는 국회에 전달할 대표를 선출하였다. 나는 선출된 대표단을 따라 국회 의사당을 향하여 갔다.



국회에 들어 서니 장내는 수라장으로 되고 있었으며 란투극이 버러지고 있었다. 지금 바로 예산안과 일미 《안전 보장 조약》 문제가 토의되는 중이였다. 국회 출입 기자의 말을 들어 보니까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일본 인민과 공산당 그리고 사회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경찰관 복무법 개정안》은 기시를 두목으로 하는 자유 민주당의 발악적인 책동에도 불구하고 부결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기자는 나에게 말하였다. 《지금 기시 정부의 정책은 일본 각계에서 더욱 더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글쎄 생각해 보십시요. 제 2차 세계 대전 때 상공 대신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 진출에 적극 노력한 전범자를 누가 수상으로 받들려 하겠습니까! 군국주의를 공공연하게 강화하려는 〈일미 안전 보장 조약 개정안〉도 아마 해를 못 보



고 매장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의사당에서 나왔다.

나는 그길로 시바우라구로 갔다. 나는 판자집들로 꽉 들어 찬 좁다란 거리의 한 로동자의 가정을 방문했다. 그는 3년째나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품팔이로 그날 그날을 연명해 나간다고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아라가와에는 대부분의 주민이 생활고에 의하여 각종 질병에 걸리어 신음하고 있는데 그 중 폐병 환자만 해도 70%는 넘는다는 것이다. 임금이란 새발의 피만치도 못 되는 것이여서 한 달 임금을 가지고 된장'국에다 밥만 먹어도 15일을 살가 말가한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니 병 치료는 엄두도 못내며 그저 죽는 날을 기다릴 뿐이라는 것이였다.

《자기 인민은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기시 정부는 〈일본 주둔 미군 고문비〉라는 명목 밑에 금년에만도 1,500 여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내서 미군을 먹여 살린답니다.》

나는 다음 날 재일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로 찾아 갔다. 나는 고향이 평북이며 아직 부모 친척들이 고향에 있다는 한 중년 로동자의 집에 찾아 갔다. 그의 가족은 다섯이였는데 그의 처와 네 살 난 막내 딸은 영양 부족으로 자리에 누워 운신을 못하고 있었다. 내가 조선에서 왔다는 말을 듣자 그는 《글쎄 이런 법이 어데 있어요. 제 나라로 가겠다는 데 왜 못 가게 합니까? 나는 하루라도 좋으니 공화국 기'발 밑에서 떳떳한 나라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요. 꼭 나를 고향으로 돌아 가게 해 주세요.》하고 애원하는 것이였다. 《어디 귀국을 념원하는 사람이 내 처 뿐인 줄 아십니까? 이 곳에 사는 모든 재일 동포들이 공화국으로 갈 것을 탄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서로써 귀국을 탄원했습니다. 그리고는 벌써 짐까지 묶어 놓고 기다린답니다. 그런데 일본 당국은 〈선별〉이니 〈재 확인〉이니 하면서 송환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실업과 빈궁,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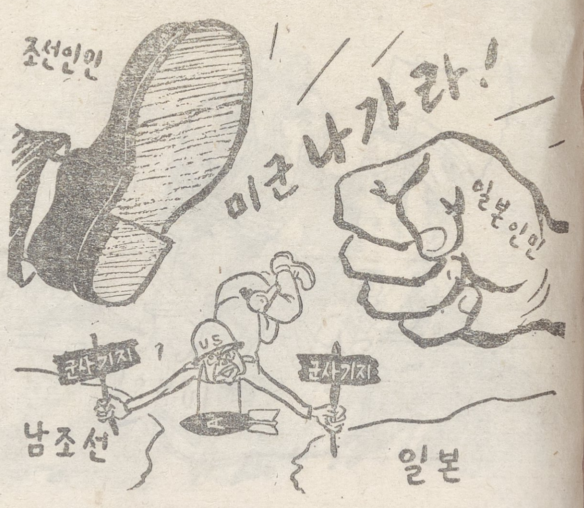


이였다.

세도 내해의 어느 한 자그마한 농촌 한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통곡을 하고 있었다. 《웬일일가?!》 나는 그리로 달려 갔다. 알고 보니 수십 명의 처녀들이 팔려 가는 길이였다. 몇 해나 계속되는 흉년에다가 지주와 고리대에게 착취를 당하고 생활고에 시달린 농민들이 딸까지 팔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인간 상인들은 그런 것은 아랑곳 없이 《기차 시간이 늦어 빨리 빨리 해》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있었다. 이렇게 팔린 처녀들은 도시로 끌려 가서 다시 인육 시장(人肉市場)으로 팔려 간다. 그런데 이런 수'자는 전국 각지에서 매 년 수천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나는 남쪽으로 멀리 날아 오끼나와에 도착하였다. 조선 전쟁 당시 미국 폭격기들이 날아 무고한 조선 인민을 살륙한 원한의 기지인 이 섬에서는 지금도 증오스러운 미국 비행기들이 맴돌고 있었다.

미군에게 땅을 빼앗기고 부모마저 잃은 한 처녀가 나에게 말하였다. 《조선 인민들이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



족적 멸시를 받는 재일 동포들의 비참한 생활에 대하여 말하였다.

세도 내해를 굽어 보면서 로케트는 어느덧 히로시마 상공에 이르렀다. 2차 대전 시기 원자 폭탄의 세례를 입어 15년도 지났는데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는 전쟁의 상처를 보면서 평양 건설의 빠른 속도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놀랐다. 그 때 이 도시는 몽땅 파괴되였고 근 20만의 사람들이 살상당했었다.

나는 적십자 병원이라는 간판이 붙은 큰 집 앞에서 웅성거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보야마라는 로인을 만났다. 그의 아들과 딸도 당시에 죽었고 지금 겨우 하나 살아 남은 손자 마저 미군의 핵무기 시험 결과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를 먹고 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환자는 그의 손자 외에 수십 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일 놈들이 계속해서 태평양 한복판에서 핵무기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니……우리는 벌써 핵무기 시험 금지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에 3천 5백만 이상이나 참가하였소》 라고 말하는 것



인민도 미군이 하루 속히 물러 갈 것을 단호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굴에 홍조를 띄우면서 말을 이었다.

《아세아의 모든 지역에서 미군의 자취가 없어지고 아세아와 태평양이 원자 무기 없는 평화 지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본 인민은 그를 위하여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나는 그의 손을 힘 있게 쥐고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조선 인민은 평화와 민주주의 및 중립을 위한 일본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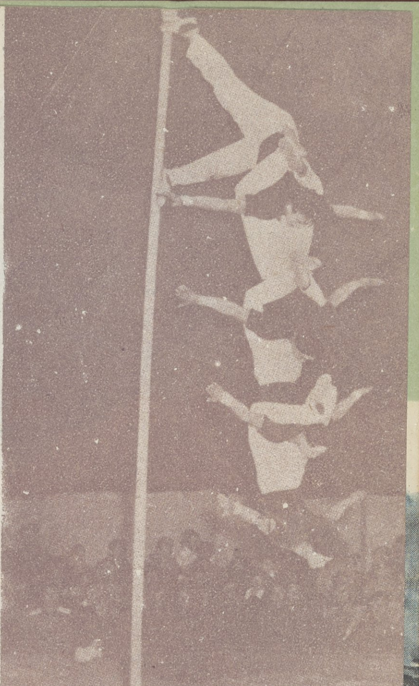
《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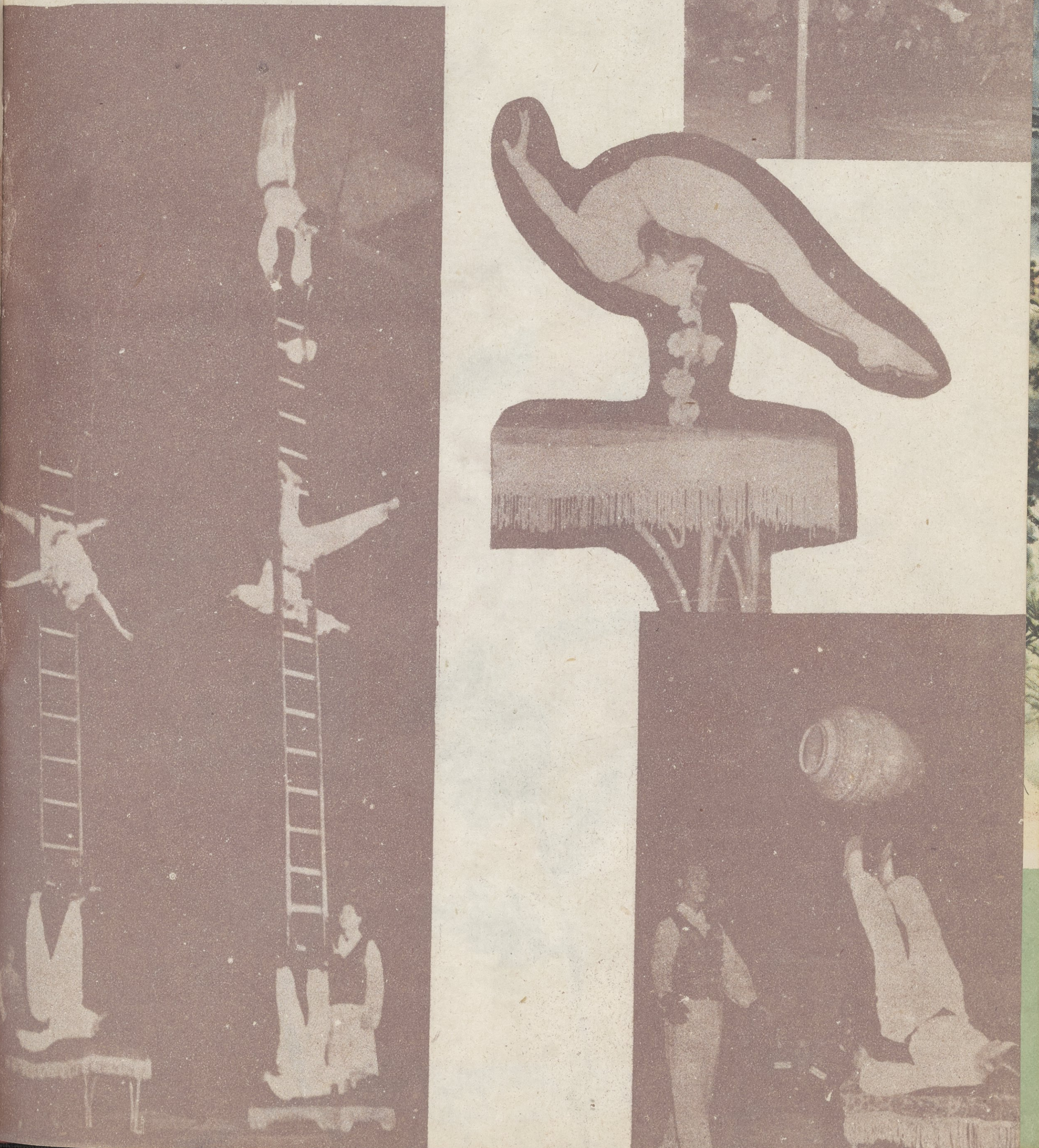
《청년 생활》 3호에 게재된 《만수의 세계 려행》의 우단 그림 (47폐지)에서 서부 독일은 동부 독일의 오식이므로 정정함.

5호 차례 제목 〈조선 인민 혁명군의 무산 지구 진출과 대홍단 일대에서의 전투 승리 20주년〉을 〈조선 인민 혁명군의 무산 지구 전투 승리 20주년〉으로 정정함

곡예의 젊은 명수들

— 국립 곡예 극장 젊은 배우들이 출연한 곡예의 매개 종목들에는 락천성과 용감성이 유감 없이 발휘되고 있다 —





제7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

1959 윈나

8016
ЧХОННИН СЭНХВАЛЬ

